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박 선 향

박
선
향

지도교수 박 정 숙

2
0
1
9
년
8
월

2 0 1 9 년 8 월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

지도교수 박 정 숙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 선 향

박선향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박 경 민

부 심 박 정 숙

부 심 이 은 주

부 심 허 만 세

부 심 한 영 란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2 0 1 9 년 8 월

감사의 말씀

처음 박사 학위과정을 시작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듯한데, 무엇 때문에 박사 공부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박사 공부가 제 삶의 필수조건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하고 싶은 공부는 해야지’라는 격려와 직장상사와 가정생활에 학업까지 병행하게 되면, 혹여 건강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박사과정 시작에 대한 격려뿐만 아니라 관심 어린 시선을 오롯이 받아야 했습니다. 주변의 격려와 걱정, 관심 속에서 제가 꾸준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제 논문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해주신 박정숙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연구하시며,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에서 師道의 길을 보았습니다. 교수님의 열정과 사랑을 깊이 새기며 배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큰 틀과 세심한 부분까지 깊이 있는 논문이 되도록 애써주신 박경민 교수님, 이은주 교수님, 한영란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조모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신 허만세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박일동 교장선생님, 권정인 교감선생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공부의 시작과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믿고 지지해준 남편 김신영과 엄마의 공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주며 토닥여 준 딸 소진은 제 공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 늘 든든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딸이 행여 학업에 매진하지 못할까봐, 늘 말씀 없이 격려를 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공부하는 며느리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못해도 공부하라며 다독여주신 시어머니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제 스스로 “왜 나는 박사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같은 일의 반복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변화를 주고 싶었고, 오롯이 제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과 제 인생의 발전 방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과제를 준비하고 논문을 작성한 시간이 힘듦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박사 학위과정은 직장생활에서 얻지 못했던 성취감, 공부하는 즐거움과 제 한계와 부족함을 함께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꾸준한 공부와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 늘 겸손함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의 가치를 알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율타리가 되어준 가족들, 박박공과 예박공 선생님들, 대학원 학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6월

박 선 향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3. 용어정의	5
II. 문헌고찰	9
1. 고등학생의 행복감	9
2.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3. 자아존중감 영향요인과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18
4. 회복탄력성 영향요인과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23
5. 개념적 기틀	30
6. 연구의 가설적 모형	34
7. 연구가설	35
III. 연구방법	38
1. 연구설계	38
2. 연구대상	38
3. 연구도구	40
4. 자료수집	43
5. 자료분석	44
6. 윤리적 고려	45
IV. 연구결과	46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6
2. 주요변수의 정규성 검증	47
3. 주요변수의 서술적 통계	49

4.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50
5. 측정모형의 분석	55
6. 가설모형의 분석	61
7. 모형의 수정	65
V. 논의	81
1.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	81
2.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 영향요인	84
3.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 증진 전략	91
4. 간호학적 의의	92
VI. 결론 및 제언	94
1. 결론	94
2. 제언	94
참고문헌	96
부 록	110
영문초록	128
국문초록	131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7
표 2. 주요변수의 정규성 분포	48
표 3. 주요변수의 서술적 통계	49
표 4. 감사성향 적합도 지수	50
표 5. 낙관성 적합도 지수	51
표 6. 부모 양육태도 적합도 지수	52
표 7. 학업스트레스 적합도 지수	52
표 8. 친구지지 적합도 지수	53
표 9. 자아존중감 적합도 지수	54
표 10. 회복탄력성 적합도 지수	54
표 11. 행복 적합도 지수	55
표 1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56
표 13.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59
표 1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및 평균분산 추출지수	60
표 15. 적합도 지수 근거	62
표 16. 가설모형 적합도	63
표 17. 가설모형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64
표 18.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70
표 19. 수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70
표 20. 수정모형의 전체 매개효과 분석	73
표 21.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75
표 22. 수정모형 가설 검증 결과	80

그림 목 차

그림 1. 행복에 대한 통합이론 모델	31
그림 2. 개념적 기틀	34
그림 3. 연구의 가설적 모형	35
그림 4. 대상자 선정과정	39
그림 5.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57
그림 6. 가설모형의 경로	65
그림 7. 수정모형	66
그림 8. 수정모형의 경로	7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확행’, ‘욜로’, ‘취계’ 등 여유로운 삶과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을 비롯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0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염유식, 김경미, 2018). 같은 유교 문화권 내에 있으면서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큰 중국과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행복지수가 높은 학생이 41.1%로 중국의 58.9%에 비해 적었고, 또한 행복지수가 낮은 학생들의 비율은 한국 71.9%로 중국 28.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도희, 2012). 한편 세대별 주관적 안녕감을 비교한 연구에서 보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이 대학생, 장년층, 노년층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한민 등, 2012),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이 국가 간 비교와 세대 간 비교에서 모두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행복감은 주관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우울과 공격성을 낮추어 청소년기 건강과 심리정서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친사회적 가치관과 행동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 2013;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은 일시적인 감정정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장발달의 주요 영향요인이 되고, 인생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진다(신지은 등, 2013; 이상록 등, 2015; Furlong, Gilman, & Huebner, 2017). 따라서 학생의 자기건강 관리능력과 적응기능수준을 향상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자 하는 학교보건 측면(유호신, 소애영, 박정모, 2017)에서도 청소년의 행복감을 이해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진학이 주요 목표인 일반고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막대한 학습량과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선택권이 없는 교과목 위주의 방과 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학원 수강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게 된다(박선향, 박정숙, 2018; 박재연, 2017). 또한 방대한 양의 대학입학 정보, 동아리활동, 독서이력, 수상경력, 자기소개서 준비, 비교과 포트폴리오, 학생부 관리 등 교과 외 활동에도 무한 노력을 하며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다(박인오, 2018; 안선희, 2016; 안선희, 김지영, 2013). 이와 같이 일반고 학생들은 경쟁적인 환경과 교과와 더불어 교과 외 과정을 습득해야하는 부담감 속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감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염유식, 김경미, 2018; 김영지, 유설희, 김수진, 2016; 서정아, 엄지민, 2015).

하지만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요보호 청소년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신승배, 2016), 학교현장에서도 주로 불안, 우울, 자살,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주로 펼치고 있다(김현정, 2017; 이찬우, 2018). 즉 치열한 입시경쟁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고 고등학생들의 행복감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들의 행복은 희생되거나 유예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있다(신승배, 2016).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관심과 개선에 대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이상록 등, 201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의 23.9%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루 평균 1.5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영지 등, 2016; 심지우, 2017). 그러므로 더 이상 고등학생의 행복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이 어떠한지 어떤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복이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서(Diener, 1984), 개인마다 다른 기준과 조건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행복에 관한 이론으로는 개인이 속한 삶의 여건과 경험들을 통하여 상향적인 영향을 받는 상향이론과 개인의 성격특성에 의해 하향적 영향을 받는다는 하향이론이 있으며, 이러한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통합하여 성격과 경험이 심리적 과

정을 통하여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행복 통합이론이 제시되었다(권석만, 2008; 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Fiest, Bodner, Jacobs, Miles & Tan, 1995). 많은 학업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고등학생들의 행복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복 이론과 더불어 성장발달에 따른 자아 혹은 가치변화 등 심리적 과정을 포함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의 행복감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연구를 보면, 성격 특성으로는 낙관성(김지영, 2016; 김혜원, 안진아, 이지연, 2016)과 감사(노혜숙, 신현숙, 2008; 허승연, 2009), 삶의 여건으로는 학업스트레스(서현주, 최형아, 2017; 박재연, 2017),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성보훈, 윤선아, 2010; 전해진, 유미숙, 2015), 사회적지지(김혁주, 2016; 신승배, 2016), 부모 양육태도(김서연, 2018; 유혜경, 2014)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허승연, 2009; 신효식, 이선정, 2012), 자아존중감(김정민, 송수지, 2017; 신효식, 이선정, 2012), 회복탄력성(권세원, 이애현, 송인하, 2012; 유혜경, 2014) 등의 심리적 과정이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 행복감이 향상 또는 저하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유사한 성격과 비슷한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고등학생이 동일하게 행복감의 저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복감을 높이는 심리적 과정을 밝히는 경로를 파악한다면 행복감 증진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심리적 과정인 자아존중감은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을 긍정적이며 가치 있게 받아들임으로써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신효식, 이선정, 2012; 조소연, 2014). 감사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평소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삶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지현, 이창환, 2009; 한아름, 2017), 낙관성은 긍정적 자기인식과 자기결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게 된다(서해인, 신나나, 2016; 천성문, 최영미, 김미옥, 2015). 또한 부모 양육태도 및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 등 삶의 여건들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세원 등, 2012; 박재연, 2017; 전해진, 유미숙, 2015). 부모가 수용적, 애정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며(이경아, 2015),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학업에 대한 주변과 본인의 기대에 부담을 갖거나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노충래, 김설희, 2012). 한편 청소년기의 사회적지지는 가족의 지지로부터 친구의 지지로 변화하게 되며(박재연, 2017), 또래관계와 사회적지지와 같은 관계적 요인들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이경아, 2015).

다양한 역경과 실패 상황에서 이를 이겨내고 오히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심리적 과정인 회복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미란, 2017; 박남수, 2017; 서경현, 2016; 장운정, 2015). 감사는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김선희, 2013; 최귀애, 2014), 낙관성은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모색하며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소영, 2019; 한영여, 2011). 애정적,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이고(이현미, 2016), 친한 친구의 지지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정지영, 2011), 대학 진학과 입시 경쟁 등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부담감은 자아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명희, 이수연, 2013).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의 성격 특성인 감사와 낙관성, 삶의 여건인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심리적 과정인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행복감 영향 요인의 경로를 파악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와 자기수용(김혜원 등, 2016), 자아존중감(나종민 등, 2017), 사회적지지(박재연, 2017), 자아탄력성(장운정, 2015) 등이 행복에 간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행복감에 이르는 전체적인 간접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각 경로의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중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격특성과 삶의 여건,

심리적 과정에 대한 고등학생 행복의 다차원성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행복 통합이론과 문헌고찰을 근거로 감사와 낙관성을 성격특성으로,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를 삶의 여건으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심리적 과정인 매개변인으로 포함하여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성격 특성과 삶의 여건 및 심리적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고등학생 행복감의 구조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다체계적 검증을 통한 행복감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각 요인들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고등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과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 통합이론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구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 2)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파악한다.
- 3)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단순 매개효과와 다중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 1) 행복감

(1) 이론적 정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평가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경험이 많으며 부정적 정서경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Diener, 200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Hills와 Argyle (2002)의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를 허승연(2009)이 번안하고 명수정과 강승호(2011)가 수정·보완한 행복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감사

(1) 이론적 정의: 긍정적 경험을 하거나 긍정적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공헌을 인식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을 의미한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2) 조작적 정의: McCullough et al. (2002)이 개발한 감사성향 척도(Gratitude Questionnaire-6 [GQ-6])를 권선중, 김교헌과 이홍석(2006)이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Korean Version Gratitude Questionnaire-6 [K-GQ-6])로 타당화한 것을 고등학생에게 맞게 노혜숙과 신현숙(2008)이 수정, 보완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낙관성

(1) 이론적 정의: 미래에 나쁜 일보다는 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이며 시간과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안정적 성격특성이다(Scheier & Carver, 1985, 1992).

(2) 조작적 정의: Scheier, Carver와 Bridges (1994)가 제작한 삶의 지향성 검사(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를 신현숙(2005)이 번안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부모 양육태도

(1) 이론적 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보여 주는 일체의 행동과 사고이다(김서연, 2018).

(2) 조작적 정의: Schaefer (1959)의 부모 양육태도를 기초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를 이순정(2011)이 재구성하고 유혜경(2014)이 수정, 보완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학업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학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긴장, 짜증, 근심, 부담감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이미자, 2009).

(2) 조작적 정의: 민하영과 유안진(1998)의 스트레스 척도 중 학교 학업 영역 스트레스 부분을 박성희(2006)가 재구성하고 이미자(2009)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6) 친구지지

(1) 이론적 정의: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지각되는 도움으로 한 개인이 그가 가진 인간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2) 조작적 정의: Nolten (1994)의 Social Support Scale을 참고로 문은식(2001)이 개발한 질문지를 명수정과 강승호(2011)가 수정, 보완한 척도 중 친구지지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7) 자아존중감

(1) 이론적 정의: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써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2) 조작적 정의: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변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8) 회복탄력성

(1) 이론적 정의: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 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어려움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이며, 넓은 의미로는 내적·외적 스

트레스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적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Block & Kremen, 1996; Block & Block, 1980).

(2) 조작적 정의: Block과 Kremen (1996), O'Connell-Higgins (1983)의 연구를 기초로 박은희(1996)가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윤혜선(2010)이 재구성하고 유혜경(2014)이 수정, 보완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고등학생의 행복감

행복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구 분야와 주제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복지감, 주관적 안녕복지, 행복 등 다른 용어로 표현되지만 모두 비슷한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신영, 백혜정, 2008; 유민상, 2016; Park & Peterson, 2009). 행복은 최상의 심리적 경험과 기능에 대한 복잡한 구성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행복 관련 연구는 쾌락주의적(hedonic) 관점과 자기실현적(eudaimonics) 관점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Ryan & Deci, 2001).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하며,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으로 제안하고 측정이 가능한 현상으로 구체화하였다(Diener, Horwitz, & Emmons, 1985; Huebner, 1994). Diener (1984)는 행복이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첫째, 행복이란 외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개인이 갖는 지극히 주관적인 내적 경험이며, 둘째, 행복은 부정적 요인의 부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며, 셋째, 행복은 삶의 모든 면에 대해 갖게 되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고 하였다. 즉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평가인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 요소인 높은 긍정 정서와 낮은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Diener, 1984).

반면 자기실현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Daimon)을 깨닫고 발휘하는 것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것이며, 개인적 성장과 발달, 도전과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Ryan & Deci, 2001). Ryff와 동료들(Ryff, 1989, 1995; Ryff & Keyes, 1995;

Ryff & Singer, 1996)은 행복을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으로 주장하였으며, 개인의 삶의 만족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개인이 잘 기능하는 정도(well-functioning)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행복감 즉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6개의 하위 요소로 자기수용(self-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 with others),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mental mastery), 자율성(autonom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을 추출하였다(강명희, 이수연, 2013). 즉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주변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며,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자기 결정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쾌락주의에서 지향하는 행복은 긍정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자기실현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지닌 강점과 미덕을 계발하고 발휘함으로써 잠재력을 최대한 구현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는 것이다(권석만, 2008). Telfer (1990)에 따르면 쾌락적 행복은 자기실현적 행복 없이도 느낄 수 있지만 자기실현적 행복은 쾌락적 즐거움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Ryff와 Singer (2000)는 심리적 안녕감이 개인의 진정한 잠재력의 실현과 완벽함의 추구로부터 개발된 개념이며, 직접적으로 행복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다 나은 삶의 부산물이라고 하였다.

고등학생 시기는 유·아동기를 거쳐 성인기로 가는 중간 단계의 발달 과정으로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인 자아실현, 성숙,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자기수용 등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김정민, 송수지, 2017; 박남수, 2017). 행복의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행복감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단순명료한 개념으로,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이해하고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이나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정고운, 서수균,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즐거운 감정을 많이 느끼고 나쁜 감정을 적게 느끼며, 삶에 만족하는 것을 ‘행복감’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생 행복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학교와 가정이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강조되며, 발달적 특성에 따라 성인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신승배, 2016).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조사(염유식, 김경미, 2018),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연구(김영지 등, 2016), 서정아와 엄지민(2015)의 연구에서 한국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높은 교육성취와 낮은 주관적 행복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높은 교육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낮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성취에 대한 스트레스와 현재의 교육시스템이 행복을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각 생애주기별로 행복 결정요인이 조금씩 다른데, 청소년기는 학업성취, 신뢰의식,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보훈, 윤성아, 2010).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친구, 사회 영역별로 구분하여 메타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개인적 특성은 정서적 안정과 자기효능감, 가족변인으로는 어머니 양육태도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은 포괄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청송, 2009). 또한 청소년의 행복은 친구, 부모와의 관계, 학업성취와 같은 사회적 측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숙, 정태연, 2009).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을 더 자주 경험하고, 부모나 교사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반면 친구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김혁주, 2016; 신승배, 2016).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이 모두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 특성이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성은모, 김균희, 2013),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부모 양육행동, 친구관계, 학교유대감 중에서는 특히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전혜진, 유미숙, 2015).

신승배(2016)는 한국 고등학생들은 남학생,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이 양호할수록,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국 청소년 삶의 질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과 주요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긍정정서 경험이 적으며 부정정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 및 긍정 정서 경험, 주요 영역별 삶의 만족을 감소시키는 반면, 사회적 효능감과 사회적지지는 삶의 만족과 긍정정서 경험, 주요 영역별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고 부정정서 경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승배, 2018).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 행복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주된 삶의 영역인 가정과 학교, 가정과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고등학생의 내적 특성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감사

영어 ‘gratitude’는 관대함, 친절, 은혜를 뜻하는 라틴어 ‘gratia’에서 유래된 말로 자신의 안녕과 복지에 기여하는 도움이나 혜택을 준 인격 대상 또는 비인격 대상에 대하여 느끼거나 표현하는 고마움을 말한다(Emmons & Crumpler, 2000). 감사하는 마음은 자주 변하는 기분, 급격하게 나타나는 정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감사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Rosenberg, 1998). 이 중 감사성향은 긍정적 경험을 하거나 긍정적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공헌을 인식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McCullough et al., 2002). 감사성향은 감정적 특성(affective trait)으로 보기도 하고(Rosenberg, 1998; McCullough et al. 2002) 개인차를 보이는 안정적 특성, 즉 성격으로 보기도 한다(권선중 등, 2006; Rosenberg, 1998).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긍정 정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선중 등, 2006; McCullough et al. 2002). 행복 하향 이론에서는 긍정정서성과 같은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적 요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감사는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긍정적 정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Cullough et al., 2002).

감사와 고등학생의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515명을 대상으로 한 노혜숙과 신현숙(2008)의 연구에서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401명을 대상으로 한 함경애, 변복희와 천성문 등(2011)의 연구에서도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에 대해 감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안도희, 2012; 허승연, 2009), 고등학생의 행복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성격강점 중 하나가 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 2016).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과 그 후로부터 4년 후에 감사의 변화를 종단적 연구로 파악한 결과, 감사의 증가는 후반기로 가면서 긍정적 감정, 삶의 만족도, 그리고 행복의 더 큰 증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no, Froh, & Emmons, 2012). 감사는 청소년의 기분,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urlong et al., 2017).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감사는 개인이 가진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거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를 통해 긍정 정서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소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긍정 정서성이 높아 행복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사를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포함하였다.

2) 낙관성

낙관성이란 미래에 나쁜 일보다는 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이며 시간과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안정적 성격특성이다(Scheier & Carver, 1985, 1992). 낙관성을 인생 전반에 걸쳐 현재 또는 미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며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적이고 학습 가능한 경향이라고 하였다(권석만, 2008; 우문식, 2016; Seligman, 2002) 낙관성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와 전망을 하는 인지적 경향성을 의미하는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첫째는 미래에 일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펼쳐질 것이라는 전반적인 기대를 뜻하는 기질적 낙관성(dispositional optimism), 둘째는 자신의 행동과 노력으로 인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희망(hope), 셋째는 사건의 원인을 자신에게 유리한 긍정적 방향으로 돌리는 설명방식(explanatory style)이라고 하였다(Furlong et al., 2017; Scheier & Carver, 1992; Seligman, 2002; Snyder, 1994, 2000).

즉 기대이론 관점에서의 낙관성은 “목표가치의 도달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나 의심”으로 낙관성과 비관성은 미리 앞을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성격 경향을 나타낸다(Scheier & Carver, 1992; Furlong et al., 2017). 설명양식이론 관점에서는 낙관성과 비관성은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즉각적인 반응 경향성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대처 반응과 관련이 있다(Seligman, 2002; Furlong et al., 2017).

낙관성과 고등학생의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중고생 357명을 대상으로 한 김혜원 등(2016)의 연구결과에서 낙관성은 청소년들의 행복에 직접 영향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은 청소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안도희, 2012; 허승연, 2009; 김지영, 2016), 주관적 안녕을 예측하는 강력한 성격요인이었고(Snyder, 1994), 삶의 만족도(Diener et al., 1999), 행복(명수정, 강승호, 2011; Seligman, 2002)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낙관성은 안정적인 성격특성으로 청소년들이 목표 성취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할 뿐 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목표를 향해 노력함으로써 행복감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을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포함하였다.

3) 부모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는 양육행위, 양육방식, 양육태도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보여주는 일체의 행동과 사고를 의미한다(김서연, 2018). 양육태도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나타내는 일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유혜경, 2014).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ecker, 1964). Fishbein과 Ajzen (1975)는 양육태도를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하여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자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가족 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Schaefer (1961)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대와 자율-통제에 따라 4가지의 양육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녀의 행동에 독립심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가장 바람직한 태도이다.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태도로 자녀에 대한 과보호와 소유적 태도를 보인다. 적대적-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양육태도로 무관심, 방임, 태만,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적대적-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관대하게 하지 않고 행동에 대해 신체적, 언어적 및 심리적인 처벌을 가하는 권위적, 독재적, 거부적인 양육태도이다.

부모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애착형 양육태도와 감독형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서연, 2018). 일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두 남녀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신효식, 이선정, 2012), 다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를 모두 나타냈으나, 어머니 양육태도는 간접 효과만을

나타내었다(유혜경, 2014). 청소년의 행복 결정요인을 메타분석 한 김청송(2009)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족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도감독 및 방임은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이 높아지는 반면, 방임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낮게 나타났다(조소연, 2014). 하지만 허승연(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행복의 영향변수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전반적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와 행복감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변수로 포함하였다.

4)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학교학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긴장, 짜증, 근심, 부담감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이미자, 2009).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80.0%가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 고등학생의 23.9%가 현재 행복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학업 부담으로 때문이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지 등, 2016).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진학을 앞두고 입시로 인한 부담감이나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의 강도가 크고(강명희, 이수연, 2013), 청소년들은 경쟁적인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학업 경쟁, 사교육 등에 시달리고 있어 행복감이 매우 낮은 편이다(한민 등, 2012). 즉 학업은 고등학생의 주요 발달과업이면서 동시에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재연, 2017).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와 행복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모상현과 이중섭(2012), 서경현(2016), 서현주와 최형아(2017), 신승배(2016)의 연구결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기 스트레스 원으로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행복감과 관련된 변수로 학업스트레스를 포함하였

다.

5) 친구지지

사회적 지지란 친구, 동료 등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인 지원으로 친구지지란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지각되는 지지로 한 개인이 그가 가진 인간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청소년기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적 접촉을 시도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청소년은 친구와의 관계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또래가 사회적 역할수행의 기준이 된다(김혁주, 2016). 청소년은 친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의 비중이 증가하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사회적 지지의 종류가 부모로부터 친구로 변화한다(김선아, 2012). 청소년기에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과 또래집단의 지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에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의 지지는 사회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김혁주, 2016).

청소년의 행복은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받으며,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승배, 2016). Larson (1990)은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긍정 정서를 가장 많이 느꼈으며 그 다음은 가족, 마지막으로 혼자 있을 때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행복감과 친구지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 748명을 대상으로 한 명수정과 강승호(2011)의 연구에서 친구 지지는 행복을 직접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승배(2016, 2018), 신효식과 이선정(2012), 허승연(2009)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친구 지지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친구 지지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및 사회화의 확장을 위한 성장 발달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이를 통한 긍정 정서와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구 지지를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포함하였다.

3. 자아존중감 영향요인과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1)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Coopersmith (1967)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개인적인 표현으로부터 형성된 상(image)이라 하였고 그 상에 대한 평가로써 자신이 능력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이며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라고 하였다. Rosenberg (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하나의 특별한 객체, 즉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로서 아동·청소년 시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였다. 아동·청소년 시기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른 발달단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개인의 주관적 행복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행복한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조소연, 2014). 주관적 안녕감 연구에서 객관적 조건이나 다른 심리적 요소들보다 자아존중감과 행복과의 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Diener, 1984),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성취에 따른 결과물인 동시에 인간관계와 생산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을 증진하게 된다(Ryan & Deci, 2000).

자아존중감과 고등학생의 행복과의 단순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 513명을 대상으로 한 신효식과 이선정(201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행복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한 최혜정, 김형관, 김진희(2017)의 연구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수진(2015)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부모 양육행동 및 친구관

계(전혜진, 유미숙, 2015), 부모 지도감독 및 방임(조소연, 2014), 학교생활 만족도(나종민 등, 2017), 청소년활동 만족도(김정민, 송수지, 2017)등의 요인들이 행복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자아존중감은 고등학생의 행복감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수였으며,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로 개인의 성장과 적응에 영향을 미쳐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설명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포함하였다.

2)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행복감 간의 관계

(1) 감사

Peterson과 Seligman (2004)는 인간의 긍정적 성품을 성격강점 및 미덕으로 체계화하였는데, 이들은 6개의 미덕과 24개의 성격강점으로 구성된 VIA 성격강점 분류체계(Values-in-Action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를 구축하였다. 감사는 24개 강점 중 하나로 감사의 특질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 활력, 낙관성, 희망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권선중 등, 2006; McCullough et al., 2002). 평소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받을 만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삶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 성공 경험을 쉽게 떠올리게 되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현, 이창환, 2009; 한아름, 2017). Bono et al. (2012)은 감사의 발달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감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한 한아름(2017)의 연구에서 감사성향과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감사성향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77명을 대상으로 한 이지현과 이창환(2009)의 연구에서 감사훈련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5,6학년 583명을 대상으로 한 이해경(2013)의 연구에서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의 감사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가 부족하였고, 감사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감사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감사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 낙관성

낙관성은 VIA 분류체계의 24개의 강점 중 하나로, 최선을 예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낙관성을 지닌 사람들은 인생의 밝은 면을 보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며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권석만, 2008). 낙관성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취, 낮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 긍정적인 인간관계, 신체적 건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nyder, 2002). 따라서 낙관적인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성취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 인간관계, 낮은 수준의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낙관성과 자아존중감의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피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낙관성 증진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천성문 등, 2015). 고등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한 서해인과 신나나(2016)의 연구에서 낙관성은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갈등대처방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한 전정미와 하영미(2016)의 연구에서 낙관성은 정신적 웰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eier와 Carver(1985, 1992)의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학생은 대학 입학 후 첫 학기동안 비관적인 학생들보다 스트레스, 우울, 외로움을 적게 느끼고 사회적지지를 더 많이 받았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졸업 학기에도 비관적인 학생에 비해 신체화 증상이 적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낙관성은 긍정적 자기인식과 자기결정을 통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낙관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었으나, 김혜원 등(2016)의 연구에서 낙관성은 청소년들의 행복에 직접 영향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의 낙관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낙관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낙관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부모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가치관과 태도 및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조소연, 2014).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년에 상관없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정서적인 선행변인으로 나타났다(이경아, 2015).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호식과 이선정(2012)의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와 김화경(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고등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권세원 등(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탄력성의 이중 매개효과도 나타났다. 전해진과 유미숙(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소연(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도감독 및 방임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

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 학업스트레스

일반고 고등학생은 대학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박재연, 2017).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이경아, 2015).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녀 인문계 고등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한 박민수(2013)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 2,444명을 대상으로 한 노충래와 김설희(2012)의 연구에서도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김현순(2014)의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동일한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고, 학업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중, 고등학생 9,300명을 대상으로 한 최인재(2014)의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에 대한 주변과 본인의 기대에 부담을 갖거나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지속적인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잃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노충래, 김설희, 2012; 박민수, 2013).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중고생 2,027명을 대상으로 한 박재연(2017)의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간접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된다.

(5) 친구지지

청소년기는 사회적 지지의 종류가 가족의 지지로부터 친구의 지지로 상당히 변화하게 되며(박재연, 2017),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선행요인으로 정서·심리적인 측면보다는 또래관계, 사회적지지와 같은 관계적 요인들이 자아존중감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이경아, 2015).

친구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고생 238명을 대상으로 한 김혁주(2016)의 연구에서도 또래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호식과 이선정(2012)의 연구에서도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 시기는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된 개체로 가정 밖에서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또래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도 의지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우면서 친구를 통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혁주, 2016; 신호식, 이선정, 2012).

친구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권세원 등(2012)의 연구에서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연(2017)의 연구에서는 친구지지가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폭력과 청소년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지지 중 친구 지지의 간접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친구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친구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회복탄력성 영향요인과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1) 회복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은 영어 'resilience'로 적응유연성, 자아탄력성, 극복력, 회복력, 탄성, 탄력성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자아탄력성과도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은 성격 유형으로 보는 시각과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시각인데, 전자는 회복탄력성을 어느 정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시각이고 후자는 학습 가능하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회복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 시련 및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하며(문미란, 2017),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홍은숙, 2006).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라고 표현하였다.

청소년기는 전 생애 중에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인 성장 발달이 가장 급변하는 시기로 사춘기의 성장통과 함께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이 시기는 정서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반면 자신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하여 심리적 갈등상태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박남수, 2017). 즉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나름대로의 역경과 시련을 겪게 되는데 회복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그것을 잘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극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도 있다. 이는 적응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습득하고 형성한 적응방식은 성인이 된 후의 사회적 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남수, 2017).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강명희와 이수연(2013)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윤정(2015)의 연구에서도 근로지지체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경현(2016)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강할수록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감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5,6학년 349명을 대상으로 한 임아영과 박미화(2017)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회복탄력성은 청소년들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을 위한 심리적 과정으로 청소년기 겪게 되는 다양한 실패와 시련을 극복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은 발달과정 상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므로 회복탄력성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포함하였다.

2)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행복감 간의 관계

(1) 감사

McCullough et al. (2002)는 평소에 감사를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이 높고 낙관적이었으며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렵고 부정적인 상황에 부딪치더라도 그 안에서 긍정적 특성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와 회복탄력성의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희(2013)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감사성향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감사일기 쓰기가 적응유연성과 학교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향상시켰으며(최귀애, 2014), 감사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수현, 김광수, 2013). 중학생 401명을 대상으로 한 함경애 등(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문제 해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 성향을 높여주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안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감사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사성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에스더, 김정규, 2015). 이와 같이 감사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정서를 잘 조절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배수현, 김광수, 2013), 평소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서 상태를 균형적으로 잘 유지하고 적응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사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

한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으나, 감사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감사는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낙관성

낙관성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비롯한 어려운 일에 직면하였을 때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것으로, 긍정적 사고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Scheier & Carver, 1992; Seligman, 2002). 낙관적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에 비해 적응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며, 그 결과 스트레스 경험 상황에서 적응적인 결과를 나타낸다(오소영, 2019).

낙관성과 회복탄력성의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고생 580명을 대상으로 한 한영여(2011)의 연구에서 낙관성과 자아탄력성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대학생 421명을 대상으로 한 오소영(2019)의 연구에서 낙관성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 향상프로그램(전정옥, 2018)과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낙관성 증진프로그램(노영천, 유순화, 2008)이 자아탄력성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학업 낙관성은 학습몰입과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한익, 2013). 낙관성은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잘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들은 낙관성이 높을수록 내·외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낙관성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으나, 낙관성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낙관성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부모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김경수, 김화경, 2011)으로,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행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혜경, 2014).

부모 양육태도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490명을 대상으로 한 김경수와 김화경(2011)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성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며 성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한 오세령(2014)의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회복탄력성은 높아졌으며, 방임이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한 이현미(2016)의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성과 사회성 모두, 통제성 일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와 김화경(201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애정적, 성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한준(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118명에 청소년기를 회고하여 성찰일지를 작성한 후 분석한 문미란(2017)의 연구에서 청소년 회복탄력성의 위험요인으로 가족관계 문제, 보호요인으로 부모님의 지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애정적, 긍정적 양육태도가 고등학생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하여 이로 인해 회복탄력성이 높아지게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부모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 799명을 대상으로 한 유혜경(2014)의 연구에서 부모 동거 중학생들은 아버지 양육태도와 어머니 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가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권세원 등(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행동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변수 간의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

윤정(2015)의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지지체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 양육태도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으나, 부모 양육태도가 자율적이고 애정적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 양육태도는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승희, 진승태, 양현석(2018)의 연구에서 대안학교 중고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6학년생 230명을 대상으로 한 반영석(2018)의 연구에서도 학업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학위과정 간호사 14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이은희, 이혜진, 2018), 대학생 33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과 학업소진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김애경, 2018).

학업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강명희와 이수연(2013)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업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으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아지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학업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5) 친구지지

함경애 등(2011)은 한국인은 개인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의 서구와는 달리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성장하면서 가족 뿐 아니라 주변 환경 및 중요한 타인들의 지지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이러한 지지의 내용은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사랑과 존중, 인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박재연, 2017).

친구지지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한 민그래(2013)의 연구와 중고생 450명을 대상으로 한 정지영(2011)의 연구에서 친구지지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 2학년 55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구지지를 포함한 사회적지지가 회복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훈, 2017). 친구로부터 제공받는 지지는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회복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친구지지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권세원 등(2012)의 연구와 김선아(2012)의 연구에서 또래관계는 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들은 친구로부터 받는 긍정적 지원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으나, 친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6)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요인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심리적·환경적 어려움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애, 김세경, 천성문, 2013).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되어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2019).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영(2019), 이하리(201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혜란(2018)의 연구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임선미(2016)의 연구, 아동청소년 만성질환자 273명을 대상으로 한 이고은(2017)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판단은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사회성을 발휘하여 적응력과 융통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권세원 등(201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으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행

복의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통합한 행복에 대한 통합이론(권석만, 2008; 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Fiest et al., 1995)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행복 통합이론은 성격 특성에 의한 하향이론과 삶의 여건 및 경험에 의한 상향이론을 포함하고, 성격 특성과 삶의 여건이 심리적 과정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합적 접근 모델이다. 이 모델은 성격특성, 삶의 여건, 심리적 과정의 세 경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경로는 행복감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향이론에서는 개인은 유전적 기질, 성격, 정서 성향 등 성격특성에 의해 생활사건이나 경험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행복감이나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Diener, 1984; Fiest et al., 1995). 상향이론에서는 객관적인 삶의 여건이 전반적인 행복 수준에 대한 주요 예측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사건과 경험에서 얻게 되는 만족감, 즐거움, 기쁨 등의 감정적 특성에 대한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평가 과정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Diener, 1984). 행복은 같은 상황과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의 여건 속에서의 경험 또한 심리적 과정의 의미 부여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권석만, 2008; 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즉 행복 통합이론은 개인의 성격 특성이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 사건은 심리적 과정의 의미 부여를 통해 평가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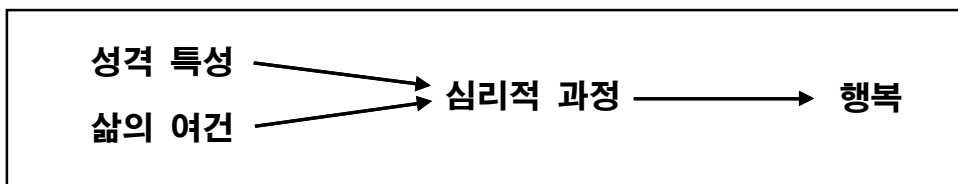


그림 1. 행복에 대한 통합이론 모델(권석만, 2008)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설명하는데 행복 통합이론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성격 특성과 삶의 여건이 심리적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이들 두 요인은 심리적 과정을 통해 행복감에 간접 영향을 주며, 심리적 과정은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념적 기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과정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적응을 통해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아청, 2008). 이러한 심리적 과정으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포함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주관적 행복에 필수적인 요건(조소연, 2014)으로 이러한 개인 내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행복감 증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고된 바 있다(허승연, 2009).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자아와 관련된 요소가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김정민, 송수지, 2018). 한편 고등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영역에서 급속한 변화와 학업성취, 대학 입시 경쟁 등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므로(박남수, 2017; 박선향, 박정숙, 2018; 신승배, 2016), 회복탄력성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명희, 이수연, 2013; 서경현, 2016; 장윤정, 2015). 회복탄력성은 내·외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반응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적응적 발달 과정을 거치는데 영향을 미쳐서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은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격 특성과 삶의 여건에 의해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은영, 2019; 이하리, 2015)를 통해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감정 통제와 사회성을 발휘하여 문제해결력, 적응력과 융통성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 통합이론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하향이론적 관점에서 감사와 낙관성을 성격 특성으로 개념적 기틀에 포함하였다. 감사는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긍정적 정서로 작용하며(McCullough et al., 2002), 감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지현, 이창환, 2009; 이혜경, 2013; 한아름, 2017), 감사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김선희, 2013; 최귀애, 2014), 감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김지영, 2016; 안도희, 2012)을 통해 감사가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낙관성은 미리 앞을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성격 경향(우문식, 2016; Furlong et al., 2017)으로 낙관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서해인, 신나나, 2016; 천성문 등, 2015), 낙관성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오소영, 2018; 한영여, 2011), 낙관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김지영, 2016; 김혜원 등, 2016)을 통해 낙관성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 통합이론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상향이론적 관점에서 고등학생의 객관적인 삶의 여건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가정과 학교로 설정하였으며,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를 개념적 기틀에 포함하였다. 먼저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권세원 등, 2012; 전해진, 유미숙, 2015), 부모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김선아, 2012; 유혜경, 2014)를 바탕으로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경유하여 행복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노충래, 김설희, 2012; 박민수, 2013), 학업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반영석, 2018; 이승희 등, 2018),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모상현, 이중섭, 2012; 서경현, 2016; 신승배, 2016)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고등학생 시기는 사회적 지지의 종류가 부모로부터 친구로 변화하는 시기(김선아, 2012)이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승배, 2016). 친구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권세원 등, 2012; 박재연, 2017), 친구지지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권세원 등, 2012; 김선아, 2012)을 통해 친구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한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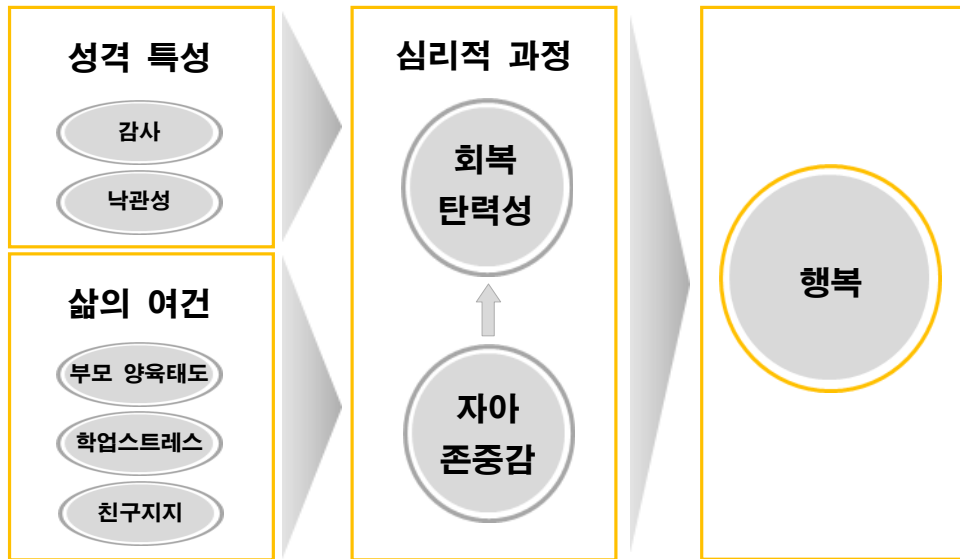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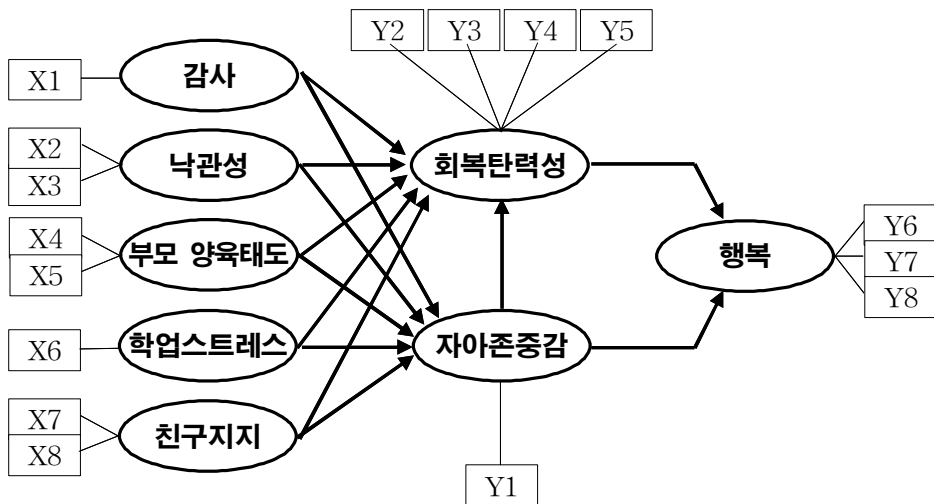


그림 2. 개념적 기틀

6. 연구의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앞에서 설명한 행복 통합이론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5개의 외생변수와 3개의 내생변수로 구성하였다. 외생변수는 감사,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이며, 내생변수는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행복감을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이들 외생변수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내생변수이자 매개변수로 회복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은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에 관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복 통합이론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그림 3)과 같이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X1=감사성향, X2=긍정적 기대, X3=비관적 기대, X4=애정-적대, X5=자율-통제, X6=학업스트레스, X7=정서적지지, X8=정보적지지, Y1=자아존중감, Y2=대인관계, Y3=활력성, Y4=호기심, Y5=감정통제, Y6=자신감, Y7=자기통제, Y8=긍정 정서

그림 3. 연구의 가설적 모형

7.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가설 1. 감사,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감사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낙관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가설 2. 감사,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감사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낙관성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부모의 양육태도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학업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가설 3.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은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자아존중감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회복탄력성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가설 4. 감사,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감사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낙관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4.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5.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가설 5. 감사,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감사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낙관성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3. 부모 양육태도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4. 학업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5.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가설 6. 감사,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감사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2. 낙관성은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3.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4.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5.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행복 통합이론과 문헌고찰을 근거로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의 전체 고등학생이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할당표집(quota sampl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대구광역시의 6개 구(區)와 1개 군(郡) 중 인구, 학생 수, 일반고등학교 수가 비슷한 3개 구를 선정하고, 경상북도의 10개 시(市)와 13개 군(郡) 중 인구, 학생 수, 일반고등학교 수가 비슷한 2개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남·여학생, 학년, 학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각 각 비율이 균등히 표집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광역시의 3개 구와 경상북도의 2개 중소도시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를 각 각 선정한 후, 학교당 1학년 1개 학반과 2학년 1개 학반을 포함하여 총 10개 학반에서 표본을 수집하였다.

구조모형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200명이 가장 적당한 표본의 크기로 400명 이상일 경우 최대우도법이 민감하게 되어 모델적합도가 낮아질 수 있다(우종필,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44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3명을 탈락하고 최종 23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탈락율은 5.3%였다.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그림 4)와 같다.

1)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

둘째, 설문지를 읽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학생

셋째, 설문조사에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

2) 대상자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를 읽고 이해할 능력이 부족한 학생(특수반 학생)

둘째, 설문조사에 자발적 참여의사가 없는 학생



그림 4. 대상자 선정과정

3. 연구도구

1) 감사

감사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McCullough et al. (2002)이 개발한 감사성향척도(Gratitude Questionnaire-6 [GQ-6])를 권선중 등(2006)이 우리나라 대학생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K-GQ-6)를 고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노혜숙과 신현숙(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K-GQ-6)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환산은 Likert식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많이 그렇다)로 되어 있다. 부정적 진술 문항 2개(3번, 6번)는 역 점수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선중 등(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이었고, 노혜숙과 신현숙(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2) 낙관성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eier, Carver 와 Bridges (1994)가 제작한 삶의 지향성검사(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를 신현숙(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문항은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 3개 문항은 비관적 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문항 4개는 검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점수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낙관성 측정 6문항은 3개의 긍정 진술문항(문항 1번, 4번, 10번), 3개의 부정 진술문항(3번, 7번, 9번), 4개의 모호 문항(2번, 5번, 6번, 8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5: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며 낙관성 점수는 총점을 문항 수(6)로 나눈 점수로 1~5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7, 9번 문항은 부정 진술로 비관성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역 점수로 환산하였다. 신현숙(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3) 부모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 (1959)의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기초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이순정(2011)이 재구성하고 유혜경(2014)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애정-적대 10문항, 자율-통제 9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1: 거의 그렇지 않다, 5: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2, 3, 7, 10, 11, 12, 13, 14, 18번 문항은 부정 진술로 역 점수로 환산하였다. 하위 요인에서 애정-적대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양육태도를 애정적이라고 지각하며 자율-통제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행동의 자율성을 인정받는다고 지각한다. 이순정(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이었고, 유혜경(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4)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하영과 유안진(1998)의 스트레스 척도 중 학교학업 영역 스트레스 부분을 박성희(2006)가 재구성하고 이미자(2009)가 5점 척도로 수정, 보완한 13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자(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5) 친구지지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Nolten (1994)의 사회적 지지 도구를 참고로 문은식(2001)이 개발한 질문지를 명수정과 강승호(2011)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명수정과 강승호(2011)의 사회적지지 도구 중 친구지지 9문항이며, 하위 요인으로 정서적지지(문항 1, 2, 3, 4번), 정보적지지(문항 5, 6, 7, 8, 9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을 문항 수(9)로 나눈 점수로 1~5의 범위를 갖는다. 명수정과 강승호(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6)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 (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6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4문항의 총 10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3, 5, 9, 10번의 부정적 문항은 역 점수로 처리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최소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연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2이었고(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8이었다.

7)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lock 과 Kremen (1996), O'Connell-Higgins (1983)의 연구를 기초로 박은희(1996)가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윤혜선 (2010)이 재구성하고 유혜경(201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대인관계 7문항, 활력성 7문항, 호기심 4문항, 감정통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척도(1: 거의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혜선(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1이었으며, 유혜경(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8) 행복

Hills 와 Argyle (2002)의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를 허승연(2009)이 번안하고 명수정과 강승호(2011)가 탐색적 요인분석한 후 자신감, 자기통제, 긍정적 정서의 하위요인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행복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전체 문항 수는 29개로, 자신감 12문항, 자기통제 11문항, 긍정 정서 6문항의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행복 점수는 총점을 문항 수 (29)로 나눈 점수로 1~5의 범위를 갖는다. 부정적 문항인 1, 5, 6, 10, 13, 14, 19, 23, 24, 27, 28, 29번 문항은 역 점수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승연(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명수정과 강승호(2011)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 14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사전에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고 설문조사 시 필요한 사항과 협조 사항에 대해 요청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각 학교의 담당교사에게 유선으로 설명문과 동의서 작성, 설문조사의 일시 및 장소, 소요시간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방문하였다.

각 학교의 담당교사와 사전 연락과 협의 후, 교실, 정보실, 도서관 등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제공된 장소에서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이익, 설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대상자에게만 설명문과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보호자 동의서 및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였다. 설문조사 시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자발적 참여 의사를 설명하였고 설문조사 중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알렸다. 설문조사 시 심리적 불편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위한 치료나 상담에 대한 안내를 함께 설명하였고, 불편감으로 인해 설문조사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참여중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렸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였으며, 설문 작성 시 시간은 1인당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에 대한 답례로 감사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3) 표본의 정규성은 Amos 22.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4) 구조모형의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5) 구조모형의 검증은 2단계 접근법으로 1단계에서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은 Amos 22.0을 이용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가설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적합지수로는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절대적합지수인 χ^2 (CIMIN), Normed χ^2 (CIMIN/DF), 잔차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근사 오차평균제곱근의 제곱근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사용하였고, 증분적합지수로는 표준적합지수 (Normed Fit Index [NFI]), IFI (Incremental Fit Index), 터커루이스 지수 (Tucker-Lewis Index [TLI]), 비교적합지수 CFI (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사용하였다.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비교를 위해 간명적합지수

인 χ^2 통계량과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을 사용하였다.

6) 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비표준화 회귀계수(모수치, regression weights),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표준화 회귀계수(β), 임계치 (Critical Ratio [C.R.]), p 값으로 확인하였고,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사용하였다.

7) 모형의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였다.

8) 팬텀변환모형을 사용하여 개별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연구 승인(IRB NO: 40525-201811-HR-112-02)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로 인한 유익성과 비밀 보장, 설문방법 및 소요시간, 연구 참여 의사가 없어졌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코딩처리와 자료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자의 개인 보관함에 3년 동안 보관한 후 분쇄하여 폐기할 것이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 55%로 많았으며, 남자가 58%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수준은 중(79.7%)이 가장 많았고, 상(11.7%), 하(8.7%)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64.9%), 하(20.8%), 상(14.3%)의 순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좋다(59.7%), 보통이다(36.4%), 좋지 않다(3.9%)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다가 71.9%로 많았고, 가족형태는 양부모(93.1%), 한부모(6.5%), 조손가정(0.4%)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31)

특성	구분	빈도	%
학년	고1	127	55.0
	고2	104	45.0
성별	남자	134	58.0
	여자	97	42.0
가정경제수준	상	27	11.7
	중	184	79.7
	하	20	8.7
성적	상	33	14.3
	중	150	64.9
	하	48	20.8
건강상태	좋다	138	59.7
	보통이다	84	36.4
	좋지 않다	9	3.9
종교	있다	65	28.1
	없다	166	71.9
가족형태	양부모	215	93.1
	한부모	15	6.5
	조손가정	1	0.4

2. 주요변수의 정규성 검증

1) 주요변수의 정규성 검증

다변량 분석의 기본적인 가정은 정규분포로 감사,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및 행복감의 점수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든 변수에 대한 정규성 분포는 다변량 정규성으로 검증하였다(우종필, 2017). 그 결과 변수의 왜도는 $-1.34 \sim 0.75$ 이며, 첨도는 $-0.63 \sim 2.28$ 로 왜도 절대값 2, 첨도 절대값 4미만의 기준을 충족하여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추정을 실시하였다(배병렬, 2011).

표 2. 주요변수의 정규성 분포

		(N=231)	
잠재변수	측정변수	왜도	첨도
감사	감사성향	-1.01	1.07
낙관성	긍정적기대	-0.30	-0.53
	비관적기대	-0.19	-0.41
부모 양육태도	애정-적대	-0.55	-0.03
	자율-통제	-1.34	2.28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0.29	-0.41
친구지지	정서적지지	0.75	1.41
	정보적지지	-0.68	0.7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0.46	-0.35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0.34	-0.32
	활력성	0.16	-0.63
	호기심	-0.17	-0.49
	감정통제	0.20	-0.27
행복	자신감	-0.33	0.14
	자기통제	-0.63	0.21
	긍정정서	-0.88	1.62

3. 주요변수의 서술적 통계

고등학생의 행복감은 평균 3.81점(5점 만점), 감사는 평균 점 5.74점(7점 만점)로 나타났다. 낙관성 평균 3.53점(5점 만점), 부모 양육태도 평균 4.10점(5점 만점), 학업스트레스 평균 3.14점(5점 만점), 친구지지 평균 4.00점(5점 만점)이었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27.84점(36점 만점), 회복탄력성 평균 3.60(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주요변수의 서술적 통계

(N=231)					
잠재변수	관측변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감사	감사성향	1-7	5.74±1.04	1.67	7.00
낙관성	전체	1-5	3.53±0.85	1.25	5.00
	긍정적기대		3.58±0.90	1.50	5.00
	비관적기대		3.47±0.90	1.00	5.00
부모 양육태도	전체	1-5	4.10±0.66	1.67	5.00
	애정-적대		3.89±0.72	1.50	5.00
	자율-통제		4.31±0.69	1.33	5.00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1-5	3.14±0.96	1.00	5.00
친구지지	전체	1-5	4.00±0.67	1.29	5.00
	정서적지지		4.00±0.63	1.33	5.00
	정보적지지		3.99±0.76	1.00	5.00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9-36	27.84±5.72	9.00	36.00
회복탄력성	전체	1-5	3.60±0.66	1.88	5.00
	대인관계		4.00±0.66	2.17	5.00
	활력성		3.39±0.85	1.60	5.00
	호기심		3.54±0.92	1.00	5.00
	감정통제		3.07±0.93	1.00	5.00
행복감	전체	1-5	3.81±0.70	1.00	5.00
	자신감		3.70±0.76	1.00	5.00
	자기통제		3.86±0.82	1.00	5.00
	긍정정서		4.00±0.74	1.00	5.00

4.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1) 감사

최초모형에서 모형 적합도가 수정 전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동일 요인 내 측정오차 간 공분산 설정을 통해 적합도를 향상시켰다. 감사성향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표 4>와 같다.

표 4. 감사 적합도 지수

모형	CMIN (p)	DF	CMIN /DF	RMR	RMSEA	GFI	AGFI	CFI
수정 전	69.02 ($p < .001$)	9	7.6	.06	.17	.91	.78	.94
수정 후	9.83 ($p = .132$)	6	1.64	.03	.04	.99	.95	1.0
적합 기준	$p > .05$		< 5	$< .05$	$< .10$	$> .90$	$> .80$	$> .90$
판정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2) 낙관성

최초모형에서 모형 적합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긍정적 기대의 2번, 비관적 기대의 1번의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제거하였다. 낙관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표 5. 낙관성 적합도 지수

모델	CMIN (<i>p</i>)	DF	CMIN /DF	RMR	RMSEA	GFI	AGFI	CFI
수정전	6.32 (<i>p</i> <.612)	8	.79	.03	.00	.99	.97	1.0
수정후	1.33 (<i>p</i> =.249)	1	1.33	.01	.04	1.0	.97	1.0
적합 기준	<i>p</i> >.05		<5	<.05	<.10	>.90	>.80	>.90
판정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3) 부모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구성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도구별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관계, 즉 요인적재량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요인적재량이 낮은 변수는 제거된다(우종필, 2016). 최초모형에서 모형 적합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수정을 통해 적합도를 개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애정-적대 요인에서 2번, 3번, 5번, 6번 문항이, 자율-통제 요인에서 1번, 2번, 9번이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제거되었다. 부모 양육태도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 양육태도 적합도 지수

모델	CMIN (<i>p</i>)	DF	CMIN /DF	RMR	RMSEA	GFI	AGFI	CFI
수정 전	389.72 (<i>p</i> <.001)	151	2.58	.07	.08	.83	.78	.83
수정 후	108.88 (<i>p</i> <.001)	52	2.09	.04	.07	.93	.89	.96
적합 기준	<i>p</i> >.05		<5	<.05	<.10	>.90	>.80	>.90
판정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 학업스트레스

최초모형에서 모형 적합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수정을 통해 적합도를 개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으로 나타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을 제거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표 7>와 같다.

표 7. 학업스트레스 적합도 지수

모델	CMIN (<i>p</i>)	DF	CMIN /DF	RMR	RMSEA	GFI	AGFI	CFI
수정 전	460.01 (<i>p</i> <.001)	65	7	.21	.16	.69	.57	.63
수정 후	19.65 (<i>p</i> <.006)	7	2.80	.06	.09	.97	.92	.97
적합 기준	<i>p</i> >.05		<5	<.05	<.10	>.90	>.80	>.90
판정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5) 친구지지

최초모형에서 모형 적합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정서적지지의 1번, 정보적지지의 3번이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제거하면서 모형수정을 하였다. 친구지지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표 8>와 같다.

표 8. 친구지지 적합도 지수

모형	CMIN (p)	DF	CMIN /DF	RMR	RMSEA	GFI	AGFI	CFI
수정 전	39.67 ($p \leq .042$)	26	1.53	.03	.05	.96	.94	.98
수정 후	25.55 ($p = .020$)	13	1.97	.02	.07	.97	.94	.98
적합 기준	$p > .05$		< 5	$< .05$	$< .10$	$> .90$	$> .80$	$> .90$
판정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6) 자아존중감

최초모형에서 모형 적합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수정을 통해 적합도를 개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으로 나타난 8번을 제거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표 9>와 같다.

표 9. 자아존중감 적합도 지수

모델	CMIN (p)	DF	CMIN /DF	RMR	RMSEA	GFI	AGFI	CFI
수정 전	215.23 ($p < .001$)	35	6.15	.05	.15	.82	.72	.85
수정 후	83.13 ($p < .001$)	24	3.46	.03	.10	.93	.86	.95
적합 기준	$p > .05$		< 5	$< .05$	$< .10$	$> .90$	$> .80$	$> .90$
판정	부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7) 회복탄력성

최초모형에서 모형 적합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수정을 통해 적합도를 개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으로 나타난 대인관계의 4번, 활력성의 1번, 4번, 감정통제의 1번을 제거하였다. 회복탄력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표 10>과 같다.

표 10. 회복탄력성 적합도 지수

모델	CMIN (p)	DF	CMIN /DF	RMR	RMSEA	GFI	AGFI	CFI
수정 전	519.70 ($p < .001$)	183	2.84	.09	.09	.83	.78	.84
수정 후	238.68 ($p < .001$)	104	2.30	.06	.07	.90	.85	.92
적합 기준	$p > .05$		< 5	$< .05$	$< .10$	$> .90$	$> .80$	$> .90$
판정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8) 행복

최초모형에서 모형 적합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수정을 통해 적합도를 개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감의 3번, 4번, 6번, 9번, 자기통제의 3번, 4번, 6번, 7번, 9번, 10번, 11번, 긍정정서의 5번, 6번이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제거되었다. 행복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는 <표 11>과 같다.

표 11. 행복 적합도 지수

모형	CMIN (p)	DF	CMIN /DF	RMR	RMSEA	GFI	AGFI	CFI
수정 전	1013.93 ($p < .001$)	347	2.92	.07	.09	.74	.70	.80
수정 후	221.72 ($p < .001$)	91	2.44	.04	.07	.90	.84	.94
적합 기준	$p > .05$		<5	<.05	<.10	>.90	>.80	>.90
판정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5. 측정모형 분석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관측변수의 수(또는 설문항목의 수)는 모형의 복잡성과 연관되어 적합도 및 경로의 유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측정항목이 많을 때에는 평균이나 총점 등을 이용하여 항목 합산(item parceling)을 통해 항목의 수를 조정해야 한다(우종필, 2017).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이 가진 정보를 최대한 살리면서 항목을 줄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행연구자가 제시한 하위요인들을 기준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후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우종필, 2017).

즉 각 측정도구별 구성체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변수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타당성이 확보된 문항으로 변수 계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합산은 감사,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 스트레스, 친구지지, 회복탄력성과 행복은 평균을 이용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총점을 이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12>와 같으며, CMIN=222.468 ($p<.001$), CMIN/DF=2.82, SRMR=.04, RMSEA=.09, GFI=.90, AGFI=.82, CFI=.94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비교적 권장하는 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5).

표 1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델	CMIN (<i>p</i>)	DF	CMIN /DF	RMR	RMSEA	GFI	AGFI	CFI
측정 모형	222.47 ($p<.001$)	79	2.82	.04	.09	.90	.82	.94
적합 기준	$p>.05$		<5	<.05	<.10	>.90	>.80	>.90
판정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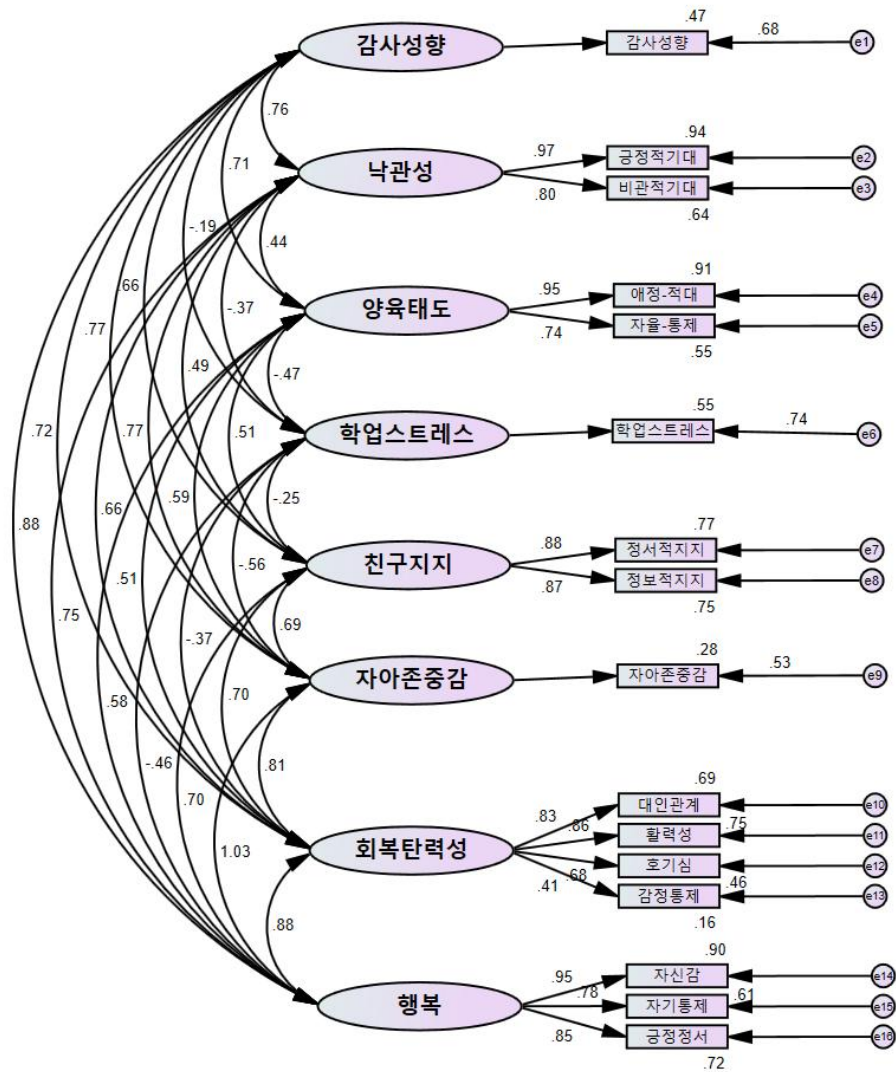


그림 5.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2)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

확인적 요인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집중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이 제대로 된 개념과 정의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표준화계수가 0.5 이상,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0.7 이상, 분산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 Index)가 0.5 이상일 때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17).

분석결과, 회복탄력성의 하위항목 중 감정통제가 요인적재량의 표준화계수가 0.4로 나타났으나, 요인적재량이 너무 낮지만 않다면 해당 관측변수를 무조건 제거하기보다는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우종필, 2017). 이외의 감사,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행복감의 모든 하위항목의 요인적재량의 표준화계수 모두 0.5 이상, 모든 잠재변수의 개념 신뢰도가 0.7 이상이었으며, 평균분산추출지수가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수렴되었다<표 13>.

2) 판별타당성

판별타당성은 2개 이상의 잠재변수 사이에서 구성된 개념들 간의 중복 또는 유사성이 없고, 차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타당성으로 상관계수(r)의 제곱 값이 평균분산추출지수 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17). 본 연구결과 평균분산추출지수 값이 모든 요인에서 상관계수(r)의 제곱값보다 크므로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표 14).

표 13.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N=231)

잠재변수	관측변수	표준화 계수	C.R.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지수
감사	감사성향	.68		.70	0.70
낙관성	긍정적기대	.97		.90	1.27
	비관적기대	.80	14.33***		
부모 양육태도	애정-적대	.95		.92	1.23
	자율-통제	.74	10.25***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74		.73	0.73
친구지지	정서적지지	.89		.93	1.20
	정보적지지	.87	-13.80***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52		.73	0.73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83		.84	0.58
	활력성	.86	15.32***		
	호기심	.68	11.08***		
	감정통제	.40	6.09***		
행복	자신감	.95		.94	0.83
	자기통제	.78	17.04***		
	긍정정서	.85	20.86***		

C.R=Critical Ratio

*** p<.001

표 1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및 평균분산 추출지수

	감사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행복		
	x1	x2	x3	x4	x5	x6	x7	x8	m1	m2a	m2b	m2c	m2d	ya	yb	yc
x1	0.83 ^a															
x2	.53**	1.13 ^a														
x3	.46**	.77**	1.13 ^a													
x4	.50**	.41**	.36**	1.11 ^a												
x5	.33**	.28**	.25**	.71**	1.11 ^a											
x6	-.09	-.23**	-.23**	-.29**	-.31**	0.86 ^a										
x7	-.41**	-.41**	-.37**	-.40**	-.35**	.17**	1.10 ^a									
x8	.43**	.41**	.33**	.44**	.35**	-.12	-.76**	1.10 ^a								
m1	.48**	.64**	.54**	.47**	.40**	-.32**	-.51**	.50**	0.86 ^a							
m2a	.49**	.52**	.41**	.50**	.36**	-.21**	-.54**	.55**	.61**	0.76 ^a						
m2b	.42**	.56**	.41**	.37**	.25**	-.20**	-.56**	.51**	.58**	.70**	0.76 ^a					
m2c	.32**	.47**	.29**	.31**	.14*	-.12	-.37**	.29**	.42**	.53**	.64**	0.76 ^a				
m2d	.19*	.26**	.24**	.26**	.18**	-.32**	-.23**	.11	.35**	.35**	.35**	.30**	0.76 ^a			
ya	.61**	.70**	.58**	.55**	.40**	-.28**	-.57**	.57**	.82**	.72**	.70**	.55**	.37**	0.91 ^a		
yb	.48**	.53**	.45**	.41**	.36**	-.32**	-.48**	.44**	.81**	.50**	.49**	.32**	.24**	.73**	0.91 ^a	
yc	.55**	.61**	.48**	.43**	.33**	-.22**	-.58**	.54**	.68**	.71**	.72**	.50**	.24**	.82**	.65**	0.91 ^a

* $p < .05$, ** $p < .01$, a : 각 요인별 대각선 행렬은 평균분산추출지수

x1=감사성향, x2=긍정적기대, x3=비관적기대, x4=애정-적대, x5=자율-통제, x6=학업스트레스, x7=정서적지지, x8=정보적지지, m1=자아존중감, m2a=대인관계, m2b=활력성, m2c=호기심, m2d=감정통제, ya=자신감, yb=자기통제, yc=긍정정서

6. 가설모형 분석

1)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모형의 적합지수란 연구모형이 표본공분산행렬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근사 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적합지수(GFI), 증분적합지수(IFI), 비교 적합지수(CFI)등을 사용하였다(우종필, 2017). 모형의 지수별 적합도 기준은 구조 방정식 모델의 합치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표 15).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가설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16>와 같다. CMIN=238.86 ($p < .001$)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CMIN값은 표본 크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우종필, 2017). 반면, TLI, CFI, RMR, RMSEA 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RMR, RMSEA 는 표본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모두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홍세희, 2000). GFI, TLI, CFI 는 보통 .9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표본크기가 200이상이면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며, RMSEA 는 .1~.08이면 보통, .08~.05이면 양호,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홍세희, 2000).

GFI=.89로 적합도 지수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MIN/DF=2.81, SRMR=.05, RMSEA=.09, AGFI=.82, NFI=.91, IFI=.94, TLI=.91, CFI=.94로 적합기준을 충족하여 가설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표 15. 적합도 지수 근거

	적합지수	내용	판정
절대적합지수	Chi-square χ^2 (CMIN)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의 모형의 완전성,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완전하게 적합하다는 귀무가설 검증	$p > .05$ (우종필, 2017)
	Normed χ^2 (χ^2/df)	자유도 증감에 따른 χ^2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명성을 검증 함	< 5 (배병렬, 2011)
	SRMR	표준화 RMR로 공분산 잔차의 평균을 표준화 한 것으로 모델 간 비교 시 유용함, 낮을수록 적합도 우수	$< .08$ (배병렬, 2011)
	GFI	주어진 모형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표본크기에 간접영향을 받음	$> .90$ (우종필, 2017)
	AGFI	Adjusted GFI로 모델의 자유도에 의해 GFI가 수정된 값, 모델의 복잡성에 관련된 지수	$> .08$ (한상숙, 이상철, 2012)
증분적합지수	RMSEA	χ^2 통계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 표본크기가 큰 제안모형을 기각시키는 검증의 한계를 수정하기 하여 개발됨	< 1.0 (홍세희, 2000)
	NFI	증분적합지수의 기본, 기초모델에 비해 제안모델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나타냄	$> .90$ (우종필, 2017)
	IFI	기초모델과 제안모델을 비교	$> .90$ (우종필, 2017)
	CFI	NFI의 단점을 보완, 모델의 복잡성에 덜 민감하며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음	$> .90$ (우종필, 2017)
	TLI	TLI는 자료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χ^2 지표의 문제를 보조할 수 있는 지표	$> .90$ (배병렬, 2011)
간명적합지수	AIC	구성개념의 수나 관측변수의 수가 다른 모델을 비교하는데 유용, 표본크기 200 이상	낮을수록 좋음 (우종필, 2017)

표 16. 가설모형 적합도

모델	CMIN	DF	CMIN/DF	SRMR	RMSEA	GFI	AGFI	NFI	IFI	TLI	CFI
가설 모형	238.86 ($p < .001$)	85	2.81	.05	.09	.89	.82	.91	.94	.91	.94
적합 기준	$p > .05$		< 5	$< .08$	< 1.0	$> .90$	$> .80$	$> .90$	$> .90$	$> .90$	$> .90$
판정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DF=Degree of Freedom;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3) 가설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구조모형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 자유 모수에 대한 회귀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p 값 등을 확인한 후, 내생 변수들의 다중 상관 자승치를 제시하였다(우종필, 2017). 회귀계수는 비표준화계수와 표준화계수가 있으며, 표준화계수는 모두 같은 분산을 가지며 최대 1.0의 값을 가진다(우종필, 2017). 본 연구에서 1.0을 초과하는 표준화 회귀계수가 감사에서 자아존중감의 경로에 나타나, 두 변수 간 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어 모형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C.R. 값은 비표준화계수를 표준오차로 나눈 것으로 유의수준 1%에서는 절대값 2.58이상, 유의수준 5%에서는 절대값 1.96 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우종필, 2017). 가설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가설모형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N=231)

외생변수	내생변수	표준화계수(β)	S.E.	C.R.	p	SMC
감사	자아존중감	1.02	4.99	1.35	.177	.89
낙관성		-.08	2.46	-0.17	.862	
부모 양육태도		-.39	3.08	-0.91	.362	
학업스트레스		-.47	2.44	-1.48	.139	
친구지지		.11	1.74	0.57	.568	
감사	회복탄력성	-.10	0.65	-0.10	.915	.70
낙관성		.18	0.15	0.72	.471	
부모 양육태도		.07	0.32	0.18	.858	
학업스트레스		.05	0.34	0.12	.903	
친구지지		.29	0.09	3.19	.001	
자아존중감		.54	0.06	0.94	.348	
회복탄력성	행복	.23	0.11	2.77	.006	.98
자아존중감		.79	0.01	9.43	***	

S.E.=Standar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 $p < .001$

모수치 추정 및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총 13개의 경로 중 3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설모형에서 친구지지에서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경로($\beta=.29$, $p=.001$), 회복탄력성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beta=.23$, $p=.006$), 자아존중감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beta=.79$,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88.8%, 회복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은 69.8%, 행복에 대한 설명력은 98.1%로 나타났다. 가설모형의 경로는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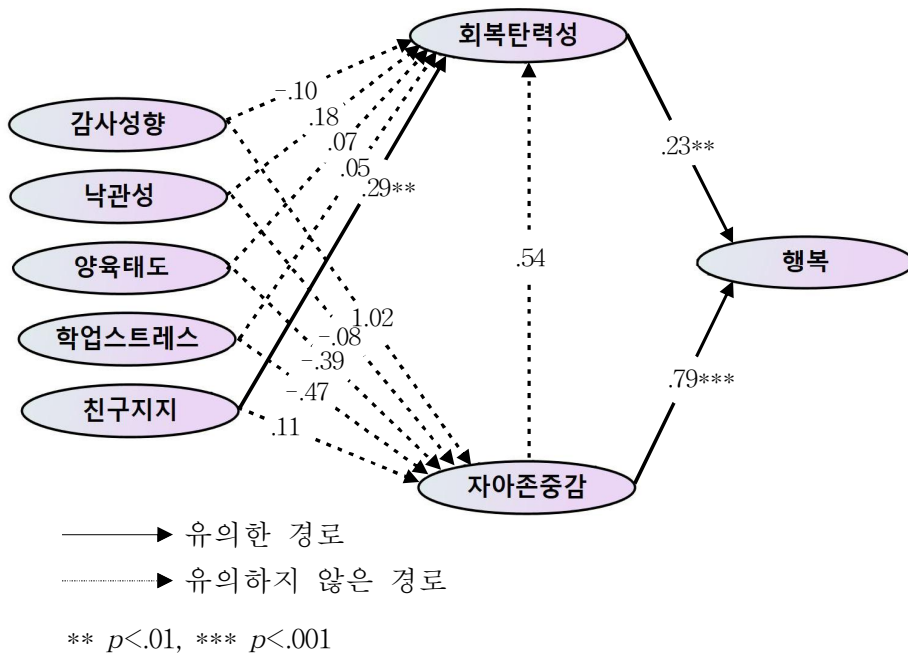


그림 6. 가설모형의 경로

7. 모형의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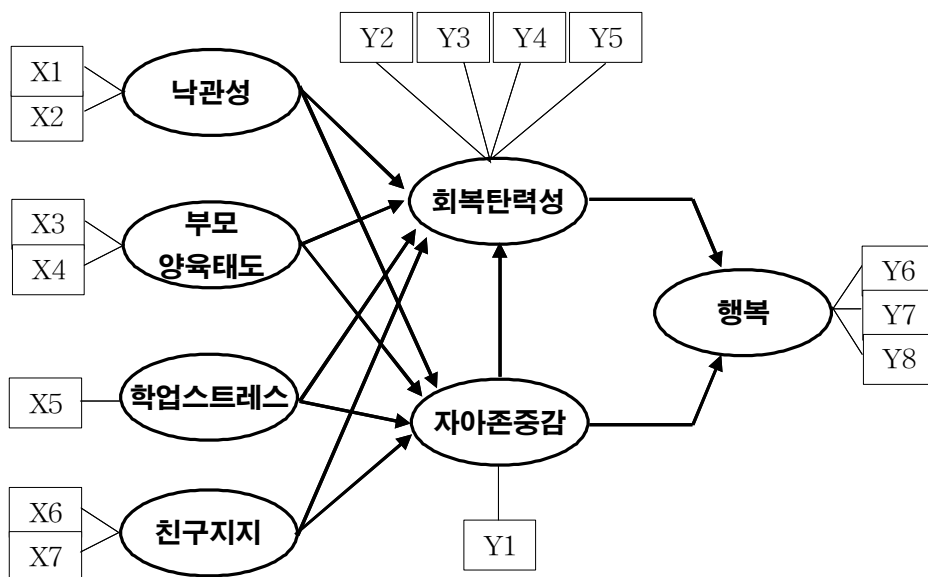
1) 모형의 수정

모델수정(model modification)이란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모델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선이란 보다 간명한 모델을 얻거나 적합도를 보다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 변화란 모델에서 특정 모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우종필, 2017). 모델수정은 이론적 기준이나 실증적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변수 간의 관계를 가설화하여 모델을 수정하는 것이다(우종필, 2017). 본 연구에서는 친구지지에서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경로, 회복탄력성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 자아존중감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감사와 자아존중감의 경로에서 표준화 회귀계수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감사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와 감사에서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경로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하나의 잠재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우중필, 2017).

가설모형의 적합도 지수 (CMIN=238.86 ($p<.001$), CMIN/DF=2.81, SRMR=.05, RMSEA=.09, GFI=.89, AGFI=.82, NFI=.91, IFI=.94, TLI=.91, CFI=.94, AIC=340.86)에 비해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MIN=118.55 ($p<.001$), CMIN/DF=2.96, SRMR=.04, RMSEA=.09, GFI=.92, AGFI=.85, NFI=.94, IFI=.96, TLI=.93, CFI=.96, AIC=194.57)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가설모형보다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어 감사에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수정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그림 7).



X1=긍정적기대, X2=비관적기대, X3=애정-적대 X4=자율-통제, X5=학업스트레스, X6=정서적지지, X7=정보적지지, Y1=자아존중감, Y2=대인관계, Y3=활력성, Y4=호기심, Y5=감정통제, Y6=자신감, Y7=자기통제, Y8=긍정정서

그림 7. 수정모형

2) 수정모형의 가설

- (1) 가설 1. 낙관성, 부모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낙관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가설 2.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낙관성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부모 양육태도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학업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가설 3.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은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자아존중감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회복탄력성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가설 4.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낙관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4.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가설 5.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낙관성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부모 양육태도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3. 학업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4.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가설 6.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낙관성은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2.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3.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각각 경유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6-4.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수정모형의 검증결과, $CMIN=118.55$ ($p<.001$)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MIN$ 값은 표본 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우종필, 2017). $RMSEA=.09$, $GFI=.92$, $CMIN/DF=2.96$, $SRMR=.04$, $AGFI=.85$, $NFI=.94$, $IFI=.96$, $TLI=.93$, $CFI=.96$ 으로 $CMIN/DF$ 값이 근소하게 커졌으나 다른 적합도 기준의 크기가 가설 모형에 비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χ^2 통계량을 비교하여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을 비교한 결과, 가설모형과 수정모형 간 자유도는 45만큼 차이가 나는데, 가설모형은 238.86, 수정모형은 118.55로 120.31 만큼 차이를 보였다. χ^2 의 차이가 자유도 45 일 때 임계값이 61.66 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우종필, 2017). 모델들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며, AIC에서도 가설모형에 비교해 적은 값을 가지므로 수정모형이 더 간명하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7). 따라서 적합기준을 충족하여 수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는 <표 18>과 같다.

4) 수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구조모형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자유 모수에 대한 회귀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p 값 등을 확인한 후, 내생 변수들의 다중 상관 자승치를 제시하였다(우종필, 2017). 회귀계수는 비표준화계수와 표준화계수가 있으며, 표준화계수는 모두 같은 분산을 가지며 최대 1.0의 값을 가진다(우종필, 2017). 본 연구에서 1.0을 초과하는 표준화 회귀계수는 없었으며 C.R. 값은 비표준화계수를 표준오차로 나눈 것으로 유의수준 1%에서는 절대값 2.58 이상, 유의수준 5%에서는 절대값 1.96 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우종필, 2017). 수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8.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델	CMIN	DF	CMI N/DF	SRM R	RM SEA	GFI	AG FI	NFI	IFI	TLI	CFI	AIC
가설 모형	238.86 ($p<.001$)	85	2.81	.05	.09	.89	.82	.91	.94	.91	.94	340.86
수정 모형	118.55 ($p=.000$)	40	2.96	.035	.09	.92	.85	.94	.96	.93	.96	194.57
적합 기준	$p>.05$		<5	<.08	<1.0	>.90	>.80	>.90	>.90	>.90	>.90	
판정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DF=Degree of Freedom;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표 19. 수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외생변수	내생변수	표준화계수(β)	S.E.	C.R.	p	SMC
낙관성	자아존중감	.46	.38	6.91	***	.74
부모 양육태도		.15	.56	2.01	.044	
학업스트레스		-.18	.68	-2.09	.037	
친구지지		.32	.60	4.83	***	
낙관성	회복탄력성	.23	.09	2.28	.023	.58
부모 양육태도		-.08	.10	-0.90	.369	
학업스트레스		.01	.13	0.06	.951	
친구지지		.33	.13	3.50	***	
자아존중감		.37	.02	0.02	.024	
회복탄력성	행복	.16	.07	2.14	.032	.98
자아존중감		.87	.01	11.79	***	

S.E.=Standar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 $p<.001$

모수치 추정 및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총 11개의 경로 중 9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낙관성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beta=.46, p<.001$), 부모 양육태도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beta=.15, p=.044$), 학업스트레스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beta=-.18, p=.037$), 친구지지에서 자아존중감을 가는 경로($\beta=.32, p<.001$)가 유의하였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73.9%로 나타났다.

낙관성에서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경로($\beta=.23, p=.023$), 친구지지에서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경로($\beta=.33, p<.001$), 자아존중감에서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경로($\beta=.37, p=.024$)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58.4%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beta=.87, p<.001$), 회복탄력성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beta=.16, p=.032$)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98.1%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경로는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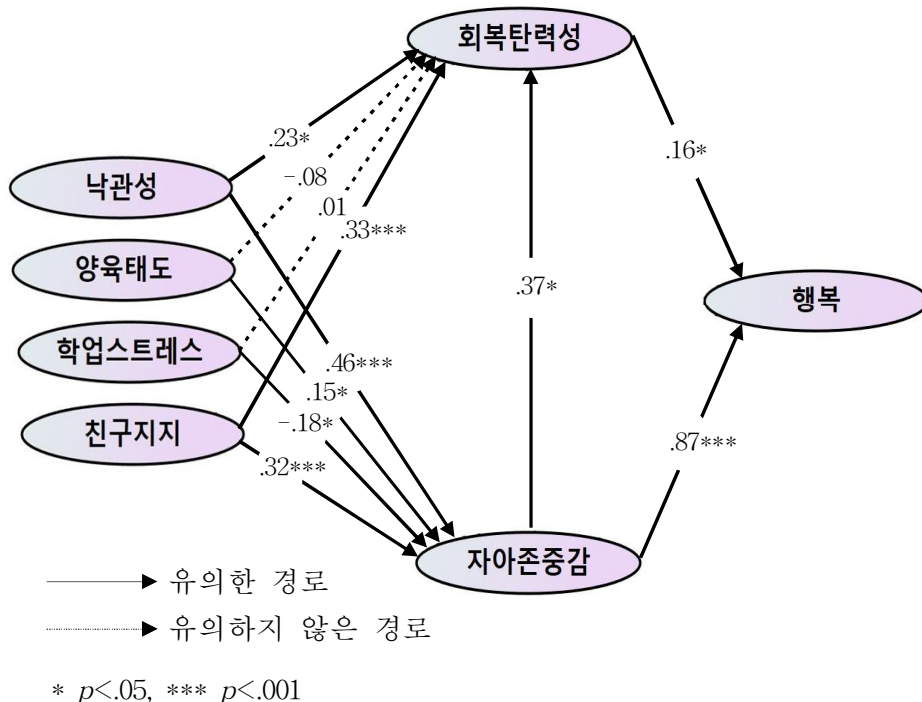


그림 8. 수정모형의 경로

5)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수정모형의 특정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크기를 분석한다(우종필, 2017). 직접효과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간접효과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하나 이상의 다른 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한다(우종필, 2017).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Amos에서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에 대한 크기는 제공되지만 직접효과에 대한 유의성만 제공되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제공되지 않는다(우종필,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우종필, 2017).

고등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경로들을 살펴보면, 행복감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경로에서는 낙관성 경로의 전체 매개효과($\beta=.46$, $p=.011$), 친구지지 경로의 전체 매개효과($\beta=.35$, $p=.00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모 양육태도 경로의 전체 매개효과($\beta=.13$, $p=.072$), 학업스트레스 경로의 전체 매개효과($\beta=-.17$, $p=.094$)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행복감 구조모형의 직접효과가 있는 경로를 살펴보면, 낙관성은 자아존중감($\beta=.46$, $p<.001$)이 회복탄력성($\beta=.23$, $p=.023$)보다 직접효과가 높았으며,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경로($\beta=.15$, $p=.044$),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경로($\beta=-.18$, $p=.037$)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beta=.33$, $p<.001$)이 자아존중감($\beta=.32$, $p<.001$)보다 직접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행복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자아존중감($\beta=.87$, $p<.001$), 회복탄력성($\beta=.16$, $p=.032$)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수정모형의 표준화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수정모형의 전체 매개효과 분석

(N=231)

외생변수	내생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값	p	경로값	p	경로값	p
낙관성	자아존중감	.46	***			.46	***
낙관성	회복탄력성	.23	.023	.17	.013	.40	.008
낙관성	행복			.46	.011	.46	.011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15	.044			.15	.044
부모 양육태도	회복탄력성	-.08	.369	.06	.033	-.02	.992
부모 양육태도	행복			.13	.072	.13	.072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18	.037			-.18	.037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	.01	.951	-.07	.076	-.06	.651
학업스트레스	행복			-.17	.094	-.17	.094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32	***			.32	***
친구지지	회복탄력성	.33	***	.12	.030	.45	.009
친구지지	행복			.35	.006	.35	.006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37	.024			.37	.024
자아존중감	행복	.87	***	.06	.008	0.93	.012
회복탄력성	행복	.16	.032			.16	.032

*** $p < .001$

6) 수정모형의 개별 매개효과 분석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고 고등학생의 낙관성,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경유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와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낙관성과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을 경유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에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이중 매개 또는 단순 매개효과를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Amos에서는 간접 효과 유의성(p 값)을 파악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다중 매개 모형을 만드는 경우 전체 간접효과만 계산이 되고 개별 간접 효과 등이 계산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팬텀(Phantom) 변수를 이용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배병렬, 2011; 허준, 2016).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간접 경로 각 각에 대한 부트스트랩을 해주지 않지만, 계수에 대한 부트스트랩을 해주기 때문에 팬텀변수를 만들어 간접 경로가 계수인 것처럼 변환해 주는 것이다(Chan, W., 2007).

팬텀변환모형은 가상의 변수를 통해 수학적으로 동치 모형을 생성하여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원 모형과 수학적으로 동일한 모형이 되도록 제약하기 때문에 모델 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변화모형에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여 특정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배병렬,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들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이르는 경로와 단순 매개하여 행복에 이르는 경로를 팬텀변환모형으로 구축한 후, 부트스트래핑은 200회를 실행하고, 편차교정은 95% 수준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이중 매개효과 및 단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팬텀변수를 이용한 이중 매개와 단순 매개의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낙관성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낙관성→자아존중감→회복탄력성→행복, $B=.024$, $p=.008$),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부모 양육태도→자아존중감→회복탄력성→행복, $B=.008$, $p=.015$)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학업스트레스→자아존중감→회복탄력성→행복, $B=-.010$, $p=.041$)와 친구지지가 자아

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친구지지→자아존중감→회복탄력성→행복, $B=.017$, $p=.008$)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21.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경로	B	p
낙관성 → 자아존중감 → 행복	.072	.005
낙관성 → 회복탄력성 → 행복	.198	.009
낙관성 → 자아존중감 → 회복탄력성 → 행복	.024	.008
부모 양육태도 → 자아존중감 → 행복	-.023	.046
부모 양육태도 → 회복탄력성 → 행복	-.066	.465
부모 양육태도 → 자아존중감 → 회복탄력성 → 행복	.008	.015
학업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행복	-.028	.155
학업스트레스 → 회복탄력성 → 행복	.006	.953
학업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회복탄력성 → 행복	-.010	.041
친구지지 → 자아존중감 → 행복	.050	.018
친구지지 → 회복탄력성 → 행복	.289	.009
친구지지 → 자아존중감 → 회복탄력성 → 행복	.017	.008

낙관성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낙관성→자아존중감→행복, $B=.072$, $p=.005$),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부모 양육태도→자아존중감→행복, $B=-.023$, $p=.046$)와 친구지지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050$, $p=.018$)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낙관성이 회복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낙관성→회

복탄력성→행복, $B=.198$, $p=.009$)와 친구지지가 회복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친구지지→회복탄력성→행복, $B=.289$, $p=.009$)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부모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부모 양육태도→회복탄력성→행복, $B=-.066$, $p=.465$)와 학업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학업스트레스→회복탄력성→행복, $B=.006$, $p=.953$)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7) 수정모형의 가설검증

본 연구의 수정모형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정모형에서 세웠던 23개의 가설 중 18개의 가설이 지지되었고 5개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1) 가설 1.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낙관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2.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3.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4.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2) 가설 2.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낙관성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2. 부모 양육태도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

은 간접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2-3. 학업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2-4.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5.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3) 가설 3.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은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자아존중감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3-2. 회복탄력성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4) 가설 4.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낙관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낙관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4-2.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4-3.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기각

되었다.

가설 4-4.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친구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5) 가설 5.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낙관성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낙관성이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5-2. 부모 양육태도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부모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5-3. 학업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학업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5-4.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친구지지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6) 가설 6.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낙관성은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낙관성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각각 경유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

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6-2.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각 각 경유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6-3.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각 각 경유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6-4.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친구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각 각 경유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이상의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수정모형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가설문	검증 결과
1-1	낙관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1-2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1-3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1-4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1	낙관성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2	부모 양육태도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학업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5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3-1	자아존중감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3-2	회복탄력성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4-1	낙관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4-2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4-3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4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5-1	낙관성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5-2	부모 양육태도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5-3	학업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5-4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6-1	낙관성은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6-2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6-3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6-4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V. 논의

본 연구는 일반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행복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 및 정책적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모형의 적합성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

본 연구는 행복 통합이론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하여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가설적 모형에서 외생변수는 감사,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이며, 이들 변수는 각 각 내생변수이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과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회복탄력성은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MIN=238.86$ ($p<.001$), $CMIN/DF=2.81$, $SRMR=.05$, $RMSEA=.09$, $GFI=.89$, $AGFI=.82$, $NFI=.91$, $IFI=.94$, $TLI=.91$, $CFI=.94$ 로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친구지지에서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경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경로에서 표준화 계수가 1.0 이상으로 나타난 감사 잠재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하향이론적 관점에서 감사는 개인의 안정적 성격특성이자 행복감을 위한 긍정적 정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한편으로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긍정적 결과물을 타인의 도움을 포함하는 외부에 귀인하는 경향에 대한 주장이 있다(Weiner, 1985). 이는 자신의 노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

사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권선중 등, 2006), 감사가 타인의 고마움에 대한 정서적 관점과 자신의 성공과 안녕에 대한 인지적 관점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사 수준이 높으면 자신의 성공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감사와 자아존중감은 다른 구성개념임에도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모형에서 제거하였다.

따라서 가설적 모형에서 감사 잠재변수 1개를 제외한 행복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7개의 잠재변수로 수정된 모형을 도출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CMIN=118.55$ ($p<.001$), $CMIN/DF=2.96$, $SRMR=.04$, $RMSEA=.09$, $GFI=.92$, $AGFI=.85$, $NFI=.94$, $IFI=.96$, $TLI=.93$, $CFI=.96$, $AIC=194.57$ 로 나타나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가설모형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어,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수정모형의 결과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설명하는데 행복 통합이론의 변수들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이 73.9%이었고, 회복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은 58.4%이었으며,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은 행복감을 98.1%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고등학생의 행복 구조모형을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고등학생 495명을 대상으로 한 전해진과 유미숙(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행동, 친구관계, 학교유대감과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이때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가장 큰 것($\beta=.45$, $p<.001$)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성숙도는 주관적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가 자아존중감($\beta=.87$, $p<.001$)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며, 친구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경로값($\beta=.32$, $p<.001$)이 전해진과 유미숙(2015)의 연구결과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경로값($\beta=.13$, $p<.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2,351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건강 요인, 가족요인, 사회요인, 개인요인이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한 권세원 등(2012)의 연구 결과, 주관적 불건강, 또래관계, 교사관계, 지역사회관계는 자아존중감과 탄력성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행동은 회복탄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아존중감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은 탄력성에 이르는 경로와 탄력성이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회복탄력성에서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값($\beta=.707$, $p<.001$)이 본 연구에서의 경로값($\beta=.16$, $p=.03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이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를 모두 설정하였는데 비해 권세원 등(2012)의 연구에서는 탄력성이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만을 설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 799명을 대상으로 한 유혜경(201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태도, 가족지지, 외모만족도, 학교성적 변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은 주관적 안녕감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유혜경(201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합적으로 질문하였으나, 유혜경(201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분리하여 질문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년 여성의 행복감에 대한 김수진(2015)의 연구에서 건강상태,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긍정적 사고가 행복감을 81.7%를 설명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경로값($\beta=.30$, $p<.001$)이 본 연구결과의 경로값($\beta=.87$, $p<.001$)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중년 여성보다 고등학생에게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위의 연구들보다 설명력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 연구들이 자아존중감 혹은 탄력성을 단독 매개변수로 지정하거나 자아존중감을 거쳐 탄력성에 이르는 경로를 설정하였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개인 특성과 삶의 여건을 제시하고 그 변수들이 심리적 과정을 거쳐서 행복을 결정하게 된다는 포괄적인 행복 통

합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식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조건이나 다른 심리적 요소들보다 자아존중감과 행복과의 관계가 가장 크다고 밝힌 Diener (1984)의 연구와 개인의 내적특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강조한 허승연(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종민 등(2017)과 신효식과 이선정(2012)의 연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소연(2014)과 전해진과 유미숙(2015)의 연구, 농촌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최혜정 등(2017)의 연구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추구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로 자아에 관한 요인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된다(신효식, 이선정, 2012; 조소연, 2014).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되어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김은영, 2019). 그러므로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유능한 측면을 부각시켜 행복감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변화가능성, 즉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김현순, 2014). 또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항상 증가하는 것이 아닌 비선형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박혜숙,

2019)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고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정체감 확립이 부족할 수 있다. 대학 입시가 중시되는 현 상황에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시간과 활동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회복탄력성으로서,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명희와 이수연(2013)의 연구, 근로청소년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윤정(2015)의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세원 등(2012)과 유혜경(2014)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행복감에 설명력이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하였다.

고등학생 시기는 성장 발달 특성 상 개인의 내적 어려움 뿐 만 아니라 주위 환경에서 오는 외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나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적응력이 중요한 시기이다(박남수, 2017). 청소년기는 가치관의 혼란, 친구관계, 가족, 학교생활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언제든지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 회복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정서적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며, 효과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일상에서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문미란, 2017; 박남수, 2017; 서경현, 2016). 일반고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경쟁, 대학 입시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사교육, 선택 없는 방과 후 활동 등으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며 보내고 있어(박선향, 박정숙, 2018),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회복탄력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은 대부분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역경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회복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그것을 잘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극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도 있다(문미란, 2017). 회복탄력성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학습 가능한 역동적인 과정이므로(문미란, 2017),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을 통해 행복감에 간접 영향을 주었다. 낙관적일수록,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가정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자아존중감 향상은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낙관성이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이 중학생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전정미, 하영미, 2016), 고등학생의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갈등대처방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서해인, 신나나, 2016), 낙관성 증진프로그램이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낙관성은 안정적 경향을 가진 개인 고유의 성격 특성인 동시에 인간이 가진 긍정적인 특성이다(우문식, 2016; Peterson & Seligman, 2004). 낙관성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무조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라고 맹목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다(권석만, 2008; 우문식, 2016; Seligman, 2002). 이러한 낙관성은 가변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Seligman, 2002) 학습과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친구지지는 낙관성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신호섭과 이선정(2012), 김혁주(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권세원 등(2012)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적 접촉을 시도하여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또래가 사회적 역할수행의 기준이 되며, 또래관계로부터 얻는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 시기이다(김혁주, 2016; 신호식, 이선정, 2012). 고등학생의 사회성 발달과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좋은 교우관계는 필수적이다(권세원 등, 2012; 이경아, 2015).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민수(2013)의 연구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충래와 김설희(2012)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으며, 김현순(2014)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동일한 시기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시에 매진하는 일반고 고등학생의 경우 좋은 성취를 해야 한다는 내적 혹은 외적 요구가 학업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서경현, 2016).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심리적 압박감, 좌절감,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과 긴장 등의 문제를 겪으며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잃으며 실제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다(나종민 등, 2017).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신효식과 이선정(2012)의 연구, 부모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권세원 등(2012) 연구, 부모 양육행동이 교육 참여와 지도감독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혜진과 유미숙(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양육하는 지도감독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난 조소연(201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유혜경, 2014), 자녀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Cheng & Furnham, 2004).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서는 애정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관심과 보호를 제공하는 일관적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면, 낙관성, 친구지지,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회복탄력성을 통해 행복감에 간접 영향을 주었다. 고등학생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친구지지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직접 효과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하리(2015)의 연구, 스포츠클럽 참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영(2019)의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세원 등(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입시 경쟁, 시험, 성적 등 일반고 고등학생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판단은 성적 하락, 시험 실패, 각종 평가 등의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회복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지지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정지영(2011)의 연구, 친구지지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민그래(2013)의 연구,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권세원 등(2012)와 김선아(20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으로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어 친구에게 받는 영향이 커진다(김혁주, 2016; 김선아, 2012). 또한 발달과정 상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대처능력이 미약하여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박남수, 2017) 친한 친구의 지지를 통해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정지영, 2011). 이런 친구의 도움을 통해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함께 극복해나가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낙관성도 회복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낙관성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과 자아탄력성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한영여, 2011), 낙관성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오소영, 2019),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노영천, 유순화, 2008)결과와 유사하였다. 진정한 낙관성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이므로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는 스트레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회복탄력성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학업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에 대해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강명희와 이수연(2013)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대안학교 중·고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이승희 등(2018)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혜경(2014)의 연구에서 부모동거 중학생들은 아버지 양육태도 및 어머니 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영석(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학업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않으므로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은 고등학생의 주요 발달과업이므로(박재연, 2017) 학업스트레스가 많다고 모든 학생들이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상관없이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통해 행복감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부모 양육태도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모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오세령(2014)의 연구,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유혜경, 2014; 이현미, 2016)의 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 양육행동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권세원 등(2012)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면서 부모, 교사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추구하여(전혜진, 유미숙, 2015) 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좀 더 발전시켜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 고등학생의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2가지를 모두 경유하여 행복감에 간접 영향을 주는 이

중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에 직접효과가 없었고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각각을 통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없었다. 부모 양육태도는 회복탄력성에 직접효과가 없었고 회복탄력성을 통해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없었다. 하지만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이중 매개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많고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이더라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이 모두 높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엄청난 학업 량과 심한 입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고 고등학생을 위하여 행복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직접효과 가설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보다 매개효과 가설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이 효과적이므로(김창대 등, 2011), 체계적인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향상 방안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진교육 프로그램(김수연, 안혜리, 2015),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교육(김은지, 강영주, 2016), 원예교육 프로그램(심윤정, 박해란, 최화자, 최정란, 2017) 등 다양한 체험 위주 교육을 적용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은 교과 연계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추병완, 2014; 최유리 등, 2018), 신체활동 통합 프로그램(이인화, 이현영, 2015), 성경강점 증진 프로그램(남현우, 김광수, 2015),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상담 프로그램(고영건, 이은경, 김현정, 김진영, 2018)등 교과연계와 활동중심 교육방법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를 나타낸 낙관성과 친구지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낙관성 향상을 위해 마음챙김 기반 표현예술치료(신지은, 2012), 커뮤니케이션 모드 게임 활용(김혜영, 류설리, 유승호, 2017), ABC 확인하기와 ABC 반박하기를 포함한 교과연계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정다정, 김광수, 2017)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친구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또래중심 스터디그룹을 만들거나 또래질의응답, 또래 가르치기를 포함하는 하브루타 수업 또는 또래상담프로그램, 또래 코칭 훈련 등을 활용한다면 긍정적 교우관계를 유지,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강갑원, 2012; 신지연, 2017).

이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일반고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은 학생들의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낙관성과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스트레스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 개념과 경로를 심도있게 이해하고, 이들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다양한 교육방법 적용, 포괄적인 행복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3.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 증진 전략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 년 고등학생들의 행복감 조사를 통해 행복감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행복 증진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 증진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변수인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향상 방안과 성격 특성인 낙관성과 삶의 여건인 친구지지 향상 방안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고의 특성 상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다. 교과과정 내에서 국어, 도덕(윤리), 사회, 영어, 가정, 진로, 보건 등의 관련 교과목의 내용체계를 재구성하여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행복 증진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낙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ABC 확인하기와 ABCDE 반박하기를 수업시간 중에 연습과 훈련을 하도록 한다.

넷째,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행복 증진프로그램 적용하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행복감 조사, 행복 증진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전담할 기구와 인력이 필요하다.

4.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적 측면

첫째,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입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이 98.1%로 매우 높게 나타나 향후 고등학생의 행복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행복 통합이론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한 본 연구는 행복감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행복감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2) 간호실무적 측면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증하고 변수들 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교육 및 간호중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성격특성인 낙관성과 삶의 여건인 친구 관계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행복감 향상을 통한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적 측면

첫째, 고등학생들의 행복감 증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

육청 내 전담팀(예: ‘행복 올리고(Go)’)을 마련한다.

둘째, 교육부 혹은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내 행복감과 관련된 교과목 혹은 행복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급 학교에 보급한다.

셋째, 학교 단위에서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행복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학교 단위에서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생참여 중심 교육방법과 다학제적인 접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소재 일반고등학교 5곳의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중 참여를 희망한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격 특성인 낙관성과 삶의 여건인 부모 양육태도, 학습스트레스와 친구지지가 심리적 과정인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거쳐서 행복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통하여 직접, 간접 경로를 구성하고 구조적 관계를 구축하였다.

모형의 검증 결과,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행복의 설명력은 9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 낙관성과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 양육태도와 학습스트레스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과정인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성격 특성으로는 낙관성을 높이고, 삶의 여건으로는 친구지지를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등학생 행복 증진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행복감이 향상될 것이다.

2. 제언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추후 학교 계열과 학교급, 성별을 구분하여 경로 모형을 제시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므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 매개 변인, 종속 변인 간 시간적 선후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고등학생을 위한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행복감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 증진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강갑원. (2012). **또래와 함께 하는 단계별 코칭 훈련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 향상방안**.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강명희, 이수연. (201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6), 265-293.
- 고영건, 이은경, 김현정, 김진영. (2018).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정서행동 특성 및 학교폭력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5(1), 237-256. [dx.doi.org/10.21509/KJYS.2018.01.25.1.237](https://doi.org/10.21509/KJYS.2018.01.25.1.237)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선중, 김효현, 이홍석. (2006). 한국판 감사 성향 척도 (K-GQ-6)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77-199.
- 권세원, 이애현, 송인한. (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 모델(Adolescent Resilience Model)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김경수, 김화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 김서연. (2018).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선아. (2012). 남녀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부모, 또래, 교사관계)와 행복감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0(4), 15-26.
- 김선희. (2013). **고등학생의 감사성향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김수연, 안혜리. (201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사 진교육 프로그램 연구: LTP를 중심으로.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42, 149-180.

- 김수진. (2015). **중년여성의 행복감 구조모형**. 을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신영, 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영지, 유설희, 김수진.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영. (2019).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고등학생이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 및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김은지, 강영주. (2016). 학교부적응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콜라주 미술치료 사례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2(4), 49-74.
- 김애경. (2018).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2), 615-635. doi.org/10.22251/jlcci.2018.18.12.615
- 김에스더, 김정규. (2015). 감사성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61-261.
- 김정민, 송수지. (2017). 청소년활동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 359-373. doi.org/10.22251/jlcci.2017.17.20.359
- 김지영. (2016). 성격강점과 행복의 관계: 초·중·고등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845-859.
- 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 (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지사: 서울.
- 김청송. (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49-665.
- 김혁주. (2016).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개인특성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현순.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 중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3), 409-437.
- 김현정. (2017, Jan 9). 교육부 “학습부진·학업중단 학생 집중 관리한다”.
뉴스1, Retrieved Oct 09, 2018, from <http://news1.kr/articles/?2879956>.
- 김혜영, 류설리, 유승호. (2017). 커뮤니케이션 보드 게임을 활용한 낙관성 증진에 관한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7(2), 117-122. doi.org/10.7583/JKGS.2017.17.2.117
- 김혜원, 안진아, 이지연. (2016). 청소년의 낙관성과 행복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2(1), 277-302. 10.15820/khjss.2016.42.1.012
- 노영천, 유순화. (2008).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교사의 낙관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열린교육연구**, 16(3), 139-157.
- 나종민, 박세진, 이기종. (2017).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55, 5-25. doi.org/10.17939/hushss2017.55.001
- 남현우, 김광수. (2015). 마음챙김 활용 성격강점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105-134.
- 노충래, 김설희. (2012).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적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에 대한 개인요인 및 사회적 지지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9), 39-68.
- 노혜숙, 신현숙. (2008).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2), 147-168.
- 명수정, 강승호. (2011). 중학생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 성취 및 낙관성의 효과. **교육평가연구**, 24(3), 619-643.
- 모상현, 이중섭. (2012).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탐색: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가족관계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홀리스틱 교육연구**, 16(3), 23-40.
- 문미란. (2017).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2(1), 37-62.
- 문은식.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민그레. (2012).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민하영, 유안진. (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박남수. (2017).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마음챙김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2(1). 63-82.
- 박미애, 김세경, 천성문. (2013).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재활심리연구**, 20(3), 627-652.
- 박민수. (2013).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스트레스가 고등학생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박선향, 박정숙. (201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799-818. doi.org/10.22251/jlcci.2018.18.20.799
- 박성희. (2006). **아동의 학교학업 스트레스 및 과외학업 스트레스와 무력감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박아청. (2008). 한국 청소년의 심리적 행복감에 위협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7(1), 95-121.
- 박은희. (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박인오. (2018). **대학입시 진로·진학 컨설팅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박재연. (2017).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친구, 가족, 교사의 지지를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3(2), 263-289. doi.org/10.15820/khjss.2017.43.2.011
- 박혜숙. (2019).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에 관한 중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907-928. doi.org/10.22251/jlcci.2019.19.4.907
- 반영석. (2018).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자아**

- 탄력성의 매개효과. **초등교육학연구**, 25(1), 73-99.
- 배병렬. (2011). **Amos 19.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출판사.
- 배수현, 김광수. (2013). 감사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12(1), 49-67.
- 서경현. (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 및 행복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11), 137-157. doi.org/10.21509/KJYS.2016.11.23.11.137
- 서정아, 엄지민. (2015).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 데이터분석보고서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5-R16-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현주, 최형아. (2017). 중·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모, 또래, 교사 관계의 조절효과. **교육문제연구**, 30(2), 51-78.
- 서해인, 신나나. (2016).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남녀 청소년의 낙관성이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37(5), 65-82. doi.org/10.5723/kjcs.2016.37.5.65
- 성보훈, 윤선아. (2010).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6, 103-134.
- 성은모, 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195.
- 신승배. (2016).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135-184.
- 신승배. (2018). 한국 청소년 삶의 질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29(1), 195-217. doi.org/10.16881/jss.2018.01.29.1.195
- 신지연. (2017). **소통하는 하브루타 수업의 효율성: 고등학교 1학년 다항식 단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신지은. (2012).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표현예술치료가 중학생의 우울 및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 **아동가족치료연구**, 11, 17-37.
- 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 (2013).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

- 가? 긍정 정서와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1-21.
- 신현숙. (2005). 청소년의 낙관성 및 비관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대처 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2(3), 165-192.
- 신효식, 이선정. (2012).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과 자기이해 변인에 관한 연구: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102-133.
- 심윤정, 박해란, 최화자, 최정란. (2017). 원예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발표대회**, 84-84.
- 심지우. (2017. Mar 25). 2017청소년을 말하다. *조선닷컴*, Retrieved Mar 25, 2019, from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515327682738&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 안도희. (2012). 한·중 청소년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50(1), 227-255.
- 안선희. (2016). 대입제도 정책문제 정의의 타당성 분석. **교육문제연구**, 29(1), 219-255.
- 안선희, 김지영. (2013). 사교육 기관 진로진학컨설팅의 내용과 특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0(2), 45-74.
- 염유식, 김정미. (2018).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정의적 특 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1(1), 1-15.
- 오소영. (2019). *대학생들이 지각한 낙관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오세령.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 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우문식. (2016). *긍정심리학은 기회다*. 안양: 물푸레.
- 우종필. (2017).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민상. (2016).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유호신, 소애영, 박정모. (2017). **지역사회간호학 2(5판)**. 서울: 수문사.
- 유혜경. (2014).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 모형 분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윤희선. (2010). **자아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이고은. (2017). **아동청소년 만성질환자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 이경아. (2015). **청소년의 연령대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정서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 탐색**.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이명훈. (2017). **마이스터고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7(2), 121-141.
- 이미자. (2009).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및 조절효과 탐색**.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doi.org/10.16881/jss.2015.10.26.4.413
- 이순정. (2011).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이승희, 진승태, 양현석. (2018). **대안학교 태권도 참여 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도학회지**, 20(2), 15-30.
- 이은희, 이혜진. (2018).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2), 297-309.
- 이인화, 이현영. (2015). **게임중독과 학교폭력성향 중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통합한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중재 및 활용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3(3), 61-72.

- 이지현, 이창환. (2009). 중학생에게서 감사 훈련이 감사성향, 생활만족도, 정서적 안녕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0(11), 3315-3320.
- 이찬우. (2018, Aug 27). 강원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1664명 폭력경험. *뉴스1*, Retrieved Oct 09, 2018, from <http://push.news1.kr/articles/?3409602>.
- 이하리. (2015). 청소년의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이한준. (2014).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회복탄력성 및 학업소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이현미.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유형을 매개변인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이혜경. (2013). 초등학생의 감사성향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이혜란. (2019).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학생의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다수준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임선미. (2016). 정서표현성과 회복탄력성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임아영, 박미화. (2017).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6(2), 137-154.
- 장윤정. (2015). 방과 후 근로청소년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1), 133-153.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1), 107-130.
- 전정미, 하영미. (2016). 청소년의 낙관성, 대처, 또래관계가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9(1), 33-41. doi.org/10.15434/kssh.

2016.29.1.33

- 전정옥. (2018).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전혜진, 유미숙. (2015).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및 미시체계 변인의 경로분석. **청소년학연구**, 22(6), 75-104.
- 정고운, 서수균. (2016).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9(1), 53-73.
- 정다정, 김광수. (2017). 교과 연계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낙관성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5(2), 65-91.
- 정지영. (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조소연. (2014). 부모의 지도감독 및 방임과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6), 59-84.
- 조한익. (2013). 고등학생의 학업낙관성, 학업스트레스,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7(4), 783-803..
- 천성문, 최영미, 김미옥. (2015). 낙관성증진 프로그램이 학교폭력피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22(2), 341-356.
- 추병완. (2014). 청소년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증진을 위한 도덕과 지도 방법. **윤리교육연구**, 34, 83-112.
- 최귀애. (2014). **감사일기쓰기가 중학생의 적응유연성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리, 김은정, 이소영, 임소진, 이지선, 박미정. (2018).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활동과제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157-158.
- 최인재.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1(10), 219-243.
- 최혜정, 김형관, 김진희. (2017).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6(1), 331-351. doi.org/10.20497/jwce.20

17.6.1.331

-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경미, 류승아. (2012).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 타 연령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5), 217-235.
- 한상숙, 이상철. (2012). **간호·보건 통계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한아름. (2017). **중학생의 감사성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한영여. (2011). **청소년 자아탄력성, 낙관성과 생활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착각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함경애, 변복희, 천성문. (2011).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2(6), 2163-2176.
- 허승연. (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허준. (2016).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한나래출판사.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은숙. (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pp.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doi.org/10.1037/0022-3514.70.2.349

- Bono, G., Froh, J. J., & Emmons, R. A. (2012). *Searching for the developmental role of gratitude: A 4-year longitudin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rlando, Florida.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2), 326-346. doi: 10.1080/10705510709336749
- Cheng, H., & Furnham, A. (2003). Personality, self-esteem, and demographic prediction of happiness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4, 921-942. doi.org/10.1016/S0191-8869(02)00078-8
- Cohen, S., & Hoberman, A.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doi.org/10.1111/j.1559-1816.1983.tb02325.x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doi.org/10.1037/0033-2909.95.3.542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doi.org/10.1037/0003-066X.55.1.34
- Diener, E., Horwitz, J., & Emmons, R. A. (1985). Happiness of the very wealthy. *Social Indicators*, 16, 263-274. doi.org/10.1007/BF00415126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I.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mmons, R. A., & Crumpler, C. M. (2000). Gratitude as a human strengt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1), 56-69. doi.org/10.1521/jscp.2000.19.1.56

- Feist, G. J., Bodner, T. E., Jacobs, J. F., Miles, M., & Tan. V. (1995). Integrating top-down and bottom-up structural models of subjective well-be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138-150. doi.org/10.1037/0022-3514.68.1.138
- Fishbein, M., & Ajzen, I. B. (1975). *Belief,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urlong, M. J., Gilman, R., & Huebner, E. S. (2017). **학교긍정심리학 1: 학생의 긍정적 심리특성과 발달**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Second Edition] . (김광수, 김경집, 하요상, 양곤성, 기경희, 한선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1년에 출판)
- Hills, P., & Argyle, M. (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1073-1082. doi.org/10.1016/S0191-8869(01)00213-6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158. doi.org/10.1037/1040-3590.6.2.149
- Larson, R. W. (1990). The solitary side of life and examination of the time people spend alone from childhood to old age. *Development Review*, 10, 155-183. doi.org/10.1016/0273-2297(90)90008-R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doi.org/10.1037/0022-3514.82.1.112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Wisconsin, USA.
- O'Connell-Higgins, R. (1983).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apacity for intimacy*. Qualifying paper. Havard Grauate School of Education.

- Park, N., & Peterson, C. (2009). Achieving and sustaining a good lif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 422-428. doi.org/10.1111/j.1745-6924.2009.01149.x
- Peterson, C., & Seligman, M. E.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senberg, E. L. (1998). Levels of analysis and the organization of affect.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247-27. doi.org/10.1037/1089-2680.2.3.24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doi.org/10.1037/0003-066X.55.1.68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46. doi.org/10.1146/annurev.psych.52.1.141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doi.org.kims.kmu.ac.kr/10.1037/0022-3514.57.6.1069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doi.org/10.1037/0022-3514.69.4.719
- Ryff, C. D. & Singer, B. (1996). Psychological well-being: Meaning,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research.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5, 14-23. doi.org/10.1159/000289026
- Ryff, C. D. & Singer, B. (2000). Biopsychosocial challenges of the new millennium.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9, 170-177. doi.org/10.1159/000012390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 Abnormal Social and Psychology*, 59, 226-23. doi.org/10.1037/h0041114
- Schaefer, E. S. (1961). Converging conceptual models for maternal behavior and for child behavior. In J. C. Glidewell (ed), *Parental attitudes and child behavior* (pp.397-401).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doi.org/10.1016/S0001-6918(61)80171-6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The Self-Consciousness Scale: A revised version for use with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687-699. doi.org/10.1111/j.1559-1816.1985.tb02268.x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doi.org/10.1007/BF01173489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doi.org/10.1037/0022-3514.67.6.1063
- Seligman, M. E. P.(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3-9).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 Snyder, C. R. (2000).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of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doi.org/10.1207/S15327965PLI130401
- Telfer, E. (1990). *Happiness*. New York: St Martin's Press.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doi.org/10.1037/0033-295X.92.4.548

부 록

(부록 1)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 수료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의 인과관계 및 설명력을 파악하는 연구로 우리나라 일반고 학생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향후 행복증진 프로그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정책 개발 등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입니다. 연구를 실시하면서 파악되는 모든 자료는 일반고 고등학생의 이해와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 도중 참여를 포기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거나 출판되지 않으며, 작성해 주신 자료는 숫자로 통계처리되어 학술논문이나 책의 일부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할 것이며 이후 파쇄 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나는 설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연구인이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 받았다.
 2.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에게 비용이나 위험이 전혀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연구 참여자나 대리인에게 즉시 알려질 것이며 연구도중 참여 동의를 취소 할 수 있음을 설명 받았다.
-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고 이해하였기에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참여인 서명 : _____ (인)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연구자 박선향

Tel : 010-5534-8302, E-mail : sat-100@hanmail.net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문의는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053-580-6299), 이메일: kmirb79@kmu.ac.kr로 해주세요.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Ver. 1.0)

연구과제명 :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

본 연구는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박선향 연구책임자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연구책임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여 청소년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녀 고등학생 25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3. 연구 참여 절차

먼저 연구자가 귀하 학교의 학교장과 담당교사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및 권리보장, 개인의 윤리적

측면 보호를 약속한 후에 가정통신문을 배부한 후 보호자와 연구 참여자의 서면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입니다. 대상자께서 스스로 읽고 응답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자가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 직접 설문지를 읽기 힘든 상태인 경우, 연구 참여자의 허락 하에 연구자가 설문지를 읽어주고 응답내용을 설문지에 표시 할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평균 30~40분 정도 예상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설문조사는 1회만 참여하고 작성 시간은 평균 30~40분 정도 예상됩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를 결정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설문지는 118여 문항으로 설문 조사가 지루하여 계속 응할 수 없거나, 설문 내용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쾌감이나 불편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중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불편감 또는 불쾌감이 있을 시에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할 것입니다. 설문을 중지한 설문지는 즉시 파쇄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감사품(3,000원 상당의 하이스피드 충전케이블)이 지급될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개인정보와 비밀보장(개인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 여부 및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의 목록나열 그리고 이에 관한 사항)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경제적수준, 성적, 주관적 건강상태, 종교유무, 가족유형), 성격 특성(감사, 낙관성), 삶의 여건(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 심리적 과정(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정보는 연구를 위해 1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것입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보관되며 연구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할 것이며 이후 파쇄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10.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도중 참여 동의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중인 설문지는 즉시 파쇄할 것입니다.

11. 연구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 053-580-6299, 이메일 : kmirb@kmu.ac.kr

연구책임자	이름:	(서명)	날짜:	2019.	03.	00.
연구참여자	이름:	(서명)	날짜:	.	.	.
보 호 자	이름:	(서명)	날짜:	.	.	.

(필요시)

법정대리인	이름:	(서명)	날짜:	.	.	.
-------	-----	------	-----	---	---	---

I.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학년은 ? : ① 고1 ② 고2
2.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 ② 여
3. 귀하의 가정 경제 수준은 ? : ① 상 ② 중 ③ 하
4. 귀하의 성적은 ? ① 상 ② 중 ③ 하
5. 귀하의 건강상태는 ? ① 좋다 ② 보통이다 ③ 좋지 않다
6. 귀하의 종교는 ? ① 있다 ② 없다
7. 귀하의 가족형태는 ?
 - ① 양부모
 - ② 한부모
 - ③ 조손가정(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생활하는 경우)
 - ④ 기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음, 삼촌, 이모 등 친척과 생활하는 경우 등)

II. 성격 특성

< 감사 성향 >

※ 다음은 각 문항의 내용이 <u>자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곳에 '√' 표시</u>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내 삶에는 감사 할 일들이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한다면, 그 길이가 매우 길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세상에는 감사히 여길만한 게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여러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이가 먹을수록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과 경험한 일들이 고맙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 적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낙관성 검사 >

※ 다음은 각 문항의 내용이 <u>자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곳에 '√' 표시</u>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드 물 게 그 렇 다	가 끔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때, 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에는 결국 나쁜 일이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 늘 낙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에게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일이 내 뜻대로 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전반적으로 내게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삶의 여건

< 부모 양육태도 >

※ 아래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u>부모님(조부모님, 삼촌, 이모 등 주양육자)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에 '√' 표시</u>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를 너무 어린애로 다루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싫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자기 일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말씀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가족들과 함께 놀거나 노래방에 가기를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쁜 일 이 아니면 내게 맡겨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내 말을 자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공부나 집 안 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기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이 옳아도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 화부터 내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은 내 의견은 듣지도 않고 나에게 관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은 내가 질문을 하면 아시는데 까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쓰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은 나의 일은 나 스스로 직접 결정하도록 맡겨 주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면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8.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님께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거의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학업 스트레스 >

※ 다음은 각 문항의 내용이 <u>자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곳에 '√' 표시</u>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지 않 다	그 렇 다	약 간 그 렇 다	아 주 그 렇 다
1. 학교 학업성적이 나빠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공부에서 노력을 해도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공부를 잘 하고 싶은데 공부 방법을 잘 몰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에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수업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숙제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8. 하루 학교 수업 시간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이 나의 학교 학업 성적을 남과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교에서 시험을 자주 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 학업 성적으로 인한 경쟁의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교 학업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커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 친구지지 >

※ 다음은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u>친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곳에 '√' 표시</u>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아 니 다	대 체 로 아 니 다	그 저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친구는 나에게 불공평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는 다른 사람이 지지하지 않을 때에도 나를 지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친구는 나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친구와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는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친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친구는 내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Ⅲ. 심리적 과정

< 자아존중감 >

※ 다음은 각 문항의 내용이 <u>자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곳에 '√' 표시</u>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대체적으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회복탄력성 >

※ 다음은 각 문항의 내용이 <u>자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곳에 '√' 표시</u>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의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때 때 로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친구와 싸운 경우 그 친구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분이 나빠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참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울할 때보다 즐거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친구들을 보면 먼저 말을 건넨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 진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잘 못한 경우 먼저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 또래의 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친구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발견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시험을 못 보았어도 다음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새로운 반 친구가 있으면 먼저 그 친구에게 말을 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가보지 않은 생소한 길도 혼자서 잘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무엇(공부,놀이)을 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궁금한 것(알고 싶은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IV. 행복

< 행복 질문지 >

※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행복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이 <u>자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곳에 '√' 표시</u>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인생에서 보람을 상당히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잠에서 깨도 별로 쉰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일에 언제나 몰입하거나 전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인생은 좋은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세상이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잘 웃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외모는 매력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원했던 일과 실제로 했던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많은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해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일들을 잘해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 인생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 시간을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정신적으로 늘 맑게 깨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자주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내 인생의 의미와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대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별로 건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 IRB승인서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문서번호	생명윤리위원회 2019. 3. 13.	발송일자	2019. 3. 13.
연구과제명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		
IRB No.	40525-201811-HR-112-02		
연구책임자	박선향	소 속	간호학과
심사일자	2019. 3. 11.		
심사결과	■ 승 인 (○) ■ 재심의 () ■ 시정승인 () ■ 반 려 () ■ 보 완 () ■ 부 결 ()		
총 연구기간	IRB 승인일로부터 1년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승인 유효기간	2019. 3. 11.부터 2020. 3. 10.까지 ☐ 총 신청 연구 기간이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사'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	■ 지적 사항이 대체로 수정됨. ■ ■ ■ ■		
이의신청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시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Happines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Park, Seonhyang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eongs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nursing intervention to enhance the happiness by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happiness of th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dentifying the cause and effect of these factors, and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resilience.

The hypothetical model is based on the theory of happiness integration and literature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optimism, parenting attitude, academic stress, and friend support life are considered as external variables, self - esteem, The happiness was composed by the endogenous variabl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rch 14, 2019 to March 28, 2019, out of the 250 first and second graders in five high schools

located in D Metropolitan City and K-Province, except for 19 persons who refused the questionnaire or were considered unfaithful. Were selected as final research subjects.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25.0 program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were tested. The AMOS 22.0 program was used to verify the validity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hypothesis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overall fitness index of the hypothesis model was good, but the overall model estimates and the effect numerical results were not good, and the revised model was comple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theoretical validity. As a result, the fitness of the final model was RMSEA = .09, GFI = .92, CMIN / DF = 2.96, SRMR = .04, AGFI = .85, NFI = .94, IFI = .96, CFI = .96 was the recommended level.

2.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e model, 18 paths of 23 hypothetical paths were supported. Self-esteem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happiness, followed by resilience,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happiness was very high (98.1%). Optimism, parenting attitude,

academic stress and friend suppor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by double mediation effect on euphoria through self - esteem and resilience.

3. Optimism, parenting attitude and friend support influenced happiness through self-esteem, and optimism and friend support influenced happiness through resilience. All of them showed simple mediating effects.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improve self-esteem and resilience in order to improve the happiness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se internal characteristics in the general high school student happiness promotion program. Also, it is thought that the happiness will be improved by improving the optimism and friend support in the happiness enhancement program, improving the autonomous and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and reducing the academic str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reflec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high school students' happiness promotion program.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

박 선 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교수 박 정 숙)

(초록)

본 연구는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들 요인간의 영향관계 및 설명력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간호중재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가설적 모형은 행복 통합이론(권석만, 2008, Diener, 1984)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낙관성의 성격특성과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의 삶의 여건을 외생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을 매개 내생 변수로 최종 내생변수로 행복감을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D광역시와 K도에 위치한 5개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250명 중, 설문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되는 19명을 제외한 총 231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AMOS 22.0 프로그램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가설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는 양호하였으나 전반적인 모수치 추정치와 효과 수치 결과가 좋지 않아 문헌고찰과 이론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수정 모형을 완성하였다. 그 결과 최종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RMSEA=.09$, $GFI=.92$, $CMIN/DF=2.96$, $SRMR=.04$, $AGFI=.85$, $NFI=.94$, $IFI=.96$, $TLI=.93$, $CFI=.96$ 로 권장 수준으로 나타났다.

2. 모형의 검증결과 23개의 가설 경로 중 18개의 경로가 지지되었다.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회복탄력성이었으며, 이들 변수들에 의한 행복감의 설명력은 98.1%로 매우 높았다.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와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경유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낙관성, 부모 양육태도와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고, 낙관성과 친구지지는 회복탄력성을 경유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단순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일반고 고등학생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적특성인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고 고등학생 행복 증진 프로그램에는 이들 내적특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복 증진 프로그램에서 낙관성과 친구지지를 높이고,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부모 양육태도를 향상시키며,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수록 행복감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행복 증진 프로그램 구안 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